



푸른 하늘에 솜사탕 같은 구름
맑은 아이들 손에 구름 같은 솜사탕
여기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안산입니다.

부곡동 성호공원
©김진국

02 경기도체육대회&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생동하는 안산에서 역동하는 경기의 꿈

1천330만 경기도민이 하나 되는 화합의 장인 제65회 경기도체육대회와 제9회 경기도 장애인체육대회가 살맛나는 생생도시 안산에서 개최된다. 행사가 열리는 동안 선수의 가족 등 수만 명 이상의 관람객이 안산을 찾을 것으로 전망된다.

06 시정소식지의 새 이름 '안산톡톡'

톡톡 튀는 이야기(talk) 가득한 소식지!!

시는 시정소식지의 새 이름에 시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한 달에 걸친 명칭 공모와 두 차례의 심사 그리고 시민 선호도 조사를 통해 명칭을 선정했다. 새로운 제호의 시정소식지는 다음호인 6월호부터 발행될 예정이다.

12-13 가정의 달 5월, 안산에서 즐기자!

도시의 오아시스, 푸른 쉼터 안산

온 세상이 초록으로 물들고 꽃이 활짝 피는 신록의 계절 5월. 화사한 꽃과 다채로운 행사가 집박으로 나오라고 끊임없이 유혹한다.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안산에 가득하다. 먼 곳까지 갈 필요 없다. 안산에서 즐기자!

18-19 우리동네

내가 사는 우리동네 마을 소식

사이동 '벚꽃과 어우러져 사이동에 살고파' / 월피동 '경기도 주민자치대회 최우수상 수상' / 고잔동 '주민의 마음모아 정(情)을 심어요' / 대부동 '홀몸 어르신 문화 탐방' 외

안산시와 SNS로 친구맺기

facebook.com/ansancity3 story.kakao.com/ch/ansancity blog.naver.com/cityansan instagram.com/ansancity

DREAM TV ANSAN www.ansandream.tv

발행일 2019년 4월 24일 발행인 안산시장 윤화섭 발행처 (15335)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 안산시청 공보관

무료 정기구독 신청 Tel 031.481.2042 / Fax 031.481.3224 / E-mail ansannews@korea.kr e- 브라보안산 www.bravoansan.net

DREAM TV YouTube NAVER TV KakaoTV ANSAN 안산드림TV



11년 만에 안산시 전역 달구는 경기도체육대회...5월 9일 화려한 막 올려 선수·임원 1만2천여 명 참가...장애인체전도 ‘잊지마세요’

제65회 경기도체육대회(도체전)가 5월 9일 안산 와~스타디움에서 화려한 막을 올린다. 3일간의 대장정에는 경기도 31개 시·군 1만2천여 명의 선수와 임원이 참가한다. 도체전에 이어 5월 23일부터 25일까지 제9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장애인체전)가 진행된다. 행사가 열리는 동안 선수의 가족 등 수만 명의 관람객이 안산을 찾을 것으로 전망된다.

안산에서 열리는 도체전은 2008년 제54회가 개최된 지 11년 만이다. 이번 도체전은 ▲공동체 화합과 축제의 장 ▲활력 있고 생동감 넘치는 도시로 변모 ▲시민의 건강과 행복한 삶 영위 등의 목표로 진행된다.

화창한 하늘 아래 3일간의 열띤 경쟁

이번 도체전에서는 모두 24개 종목이 치러진다. 21개 종목은 정식종목으로, 농구와 레슬링, 바둑은 시범종목으로 치러진다. 사격을 제외한 모든 종목의 경기가 치러지는 안산에서는 모두 34개소의 경기장이 도체전의 장이 된다.

시는 도체전 개최를 앞두고 낡은 시설의 정비를 모두 마쳤으며, 일부 경기장에는 공공와 이파이도 설치해 불편함을 최소화했다. 도체전에 참가하는 선수는 물론, 시민 등 관람객도 편하게 관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것이다.

도체전의 슬로건은 ‘생동하는 안산에서 역동하는 경기의 꿈’, ‘서해 중심 안산에서 세계 중심 경기도로’다. ‘생동하는 안산에서 경기도민이 화합하여 꿈을 향해 전진, 서해안의 중심 도시 안산에서 경기도민의 힘을 모아 세계 중심으로 뻗어나감’ 등의 뜻을 담고 있다.

엠블럼과 마스코트도 안산을 상징한다. 엠블럼은 단원 김홍도의 그림 ‘무동도’를 리드미컬한 춤사위와 무동의 미소를 모티브로, 시화호의 물결, 바람, 태양의 펄럭임을 안산의 색깔로 꿈과 희망을 형상화했다. 안산의 시조 노랑부리백로를 표현한 마스코트는 상록구를 상징하는 ‘로기’가 정정당당한 스포츠의 이상을 가리키며, 단원구 상징 ‘다니’가 모두의 참여와 단합을 전달한다. 로기와 다니는 함께 성화봉을 잡아 체전을 상징하고 있다.

도체전이 끝난 뒤 5월 23~25일 진행되는 장애인체전은 ‘모두가 즐거운 축제의 장’이 목표다. 도체전보다 7종목 적은 17개 종목으로 치러지는 장애인체전에는 선수 1천900명과 임원·보호자 1천200명, 심판·운영요원 500명 등 모두 3천600여 명이 참가한다.

시 관계자는 “안산시가 개최 도시로서 위상을 높이고, 각 경기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경기장 시설과 교통, 도시환경, 안전 및 의료, 홍보 등 모든 분야에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안산시를 방문한 선수와 임원, 관람객 모두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 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천년(千年)의 숨결, 미래(未來)의 물결

제65회 도체전은 5월 7일 오전 성화 채화를 시작으로 펼쳐진다. 천년도시 안산을 대표하는 문화재이자 경기도 기념물 제127호로 지정된 안산읍성은 성화 채화지로서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수암봉 자락에 위치한 안산읍성은 안산시의 발원지이며, 지역주민 누구나 접근하기 쉬워 성화 채화지로 낙점됐다.

제천례와 성무공연을 시작으로 성화 채화가 이뤄지면 8일까지 안산시 내 25개 동 전역 87km에 이르는 거리에서 성화 봉송이 진행된다. 전체 304명이 투입되는 성화 봉송에는 노인팀, 여성팀, 다문화팀, 청소년팀, 프로팀 등 다양한 계층에서 참여한다. 대부도를 진입할 때는 시화호 내 반달섬에서 배를 이용해 시화나래 선착장으로 이동하기도 한다.

이틀에 걸쳐 성화 봉송이 이뤄지면서 1일차인 7일에는 최용신 기념관에, 2일차인 8일에는 대부동 행정복지센터에 성화가 안치된다.

성화는 9일 오후 7시30분 ‘천년의 숨결’이라는 주제로 도체전 개회식이 열리는 안산 와~스타디움에 도착한다. 축하공연과 함께 성화가 점화되면 본격적인 행사가 시작된다. 개회식은 오후 3시30분 사전 행사를 시작으로 오후 9시쯤 마무리된다.

태권도 시범 공연부터 국제거리극축제 퍼포먼스 등 사전 행사가 진행되면 걸그룹 모모랜드와 동춘서커스 공연, 인기가수 에일리의 공연까지 쉴 틈 없이 볼거리가 쏟아진다. 3일간의 대장정이 끝난 뒤 폐회식은 11일 상록수체육관에서 열린다. 폐회식에도 지구촌합창단의 축하공연 등이 이어진다. 이후 성적 발표, 시상 등이 진행되면 폐회선언과 함께 대회기는 다음 개최지인 고양시로 넘어간다.

장애인체전의 개회식은 첫가락을 빛내 ‘다시 손잡고’라는 주제로 마련된다. 두 개가 짝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가 담겼다. ▲각각 다른 두 개가 서로의 가치를 갖고 인정하는 마음 ▲순환의 지혜를 가진 연결의 이름 ▲이제 우리 다시 손을 잡고 함께 가리라 등의 뜻이 주제와 함께한다.

3일간의 대장정이 지나면 ‘나를 넘어 우리로’라는 주제로 폐회식이 열린다. 폐회식에는 ‘경쟁하지만 경쟁자인 상대방을 위한 경쟁, 그것이 어울림이니 이제 나를 넘어 우리로 함께 나아가자’는 의미가 담겼다.

시 관계자는 “도체전 개회식부터 장애인체전 폐회식까지 참가자 모두 안전하고 즐거운 대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많은 이들이 안산을 찾길 바란다”고 말했다.

◇ 문의 : 안산시체육진흥과(031-481-6489, 4497)



2019안산국제거리극축제

안전, 환경을 중심으로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축제



올해로 열다섯 번째 발걸음을 내딛는 안산국제거리극축제는 5월 4일(토)부터 6일(월)까지 3일 간 안산시 일대 및 산문화광장에서 진행된다.

2019안산국제거리극축제는 '아시아 거리예술의 메카'라는 새로운 비전을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담아낸다. 역대 최다 국가수를 기록하는 이번 축제는 17개 국가 중 8개 아시아 국가 작품으로 구성되어 유럽의 정통 거리극과 아시아의 역동적이고 새로운 공연을 적절히 배치했다.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인도 등 다양한 국가의 공연으로 기존과 차별된 거리

공연을 만나볼 수 있다.

올해 안산국제거리극축제는 안산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제작지원 작품인 안산리서치 2편을 포함해 국내·외 공식참가작 11편, 신진예술가들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ASAF프린지 6편, 광대의도시 12편, 무경계시대 7편으로 구성된 공연 프로그램과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만들어지는 도시놀이터, 시민버전4.0 등의 기획프로그램으로 풍성한 볼거리를 선보일 예정이다.

환경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모두가 함께 즐거운 축제를 만들기 위해 많은 고민을 해온 축제는 축제기간동안 '필(必)환경'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생분해봉투를 현장에서 배포한다. 또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벤트를 진행하여 환경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을 깨우고, 환경보호의 노력을 함께 한다. 자세한 사항은 안산국제거리극축제 홈페이지(<http://ansanfest.com>)를 참조하면 된다.

◇ 문의 : 안산문화재단(1588-0402)

안산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센터 문열어

장애인의 안전하고 편안한 이동권 보장

장애인의 안전하고 편안한 이동권 보장을 위한 '안산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센터'가 4월 17일 문을 열었다.

'안산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센터'는 상록수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운영하며, 안산시 거주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장애인의 안전하고 편안한 이동권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리센터는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918(고잔동) 중앙역 신도시방향 주차장에 위치하여 많은 장애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에게는 신체 일부와 같은 이동기기의 수리 지원을 통하여 지역사회에서 보다 안전하고 편안하게 장애인이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안산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센터는 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 수리를 지원하는 한편, 수리기간 중 사용할 이동기기 대여, 이동기기 세척서비스, 정기 순회 출장수리 등의 복지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 문의 : 안산시 장애인복지과(031-481-3027)

'엄마들의 쉼 프로젝트' 국민디자인단 위촉

심리상담 · 문화공연 등 육아에 지친 부모 지원 마련

안산시는 4월 10일 저출산 인식개선사업 및 엄마들의 쉼 프로젝트 개발을 위한 '국민디자인단'을 위촉했다.

올해 행정안전부 국민디자인단 공모심사 결과 대학연계형 과제로 선정된 '엄마들의 쉼 프로젝트 국민디자인단'은 출산정책 수요자(다자녀가정의 모), 서비스 디자이너(한양대



학교 학생), 담당 공무원 등 총 28명으로 구성됐으며, 위촉장 수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한다.

'국민디자인'은 정책 수요자인 국민과 공급자인 공무원이 함께 정책 과정 전반에 참여해 공공 서비스를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국민 참여형 정책모형이다.

이번 국민디자인 대학연계형 과제인 '엄마들의 쉼 프로젝트'는 자녀에 대한 육아 및 가사에 지친 어머니에게 심리상담, 문화공연 관람 등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방안 마련에 초점을 맞춰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저출산의 다양한 사회적 요인을 분석하여 기존 출산정책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시민이 함께 대안을 마련하여 보다 나은 방향으로 정책이 실현되어 가도록 깊이 있는 논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 문의 : 안산시 여성가족과(031-481-2606)

소식通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2배 상향

에너지사용량 감축률에 따라 지급

안산시는 탄소포인트제 가입자의 인센티브를 2배로 상향 조정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미세먼지 저감 활동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한다.

'탄소포인트제'는 국민 개개인이 온실가스 감축 활동에 직접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제도로 가정, 학교 및 아파트 단지 등 비산업부문 에너지사용량의 감축률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범국민적 기후변화 대응 활동이다.

시는 탄소포인트제 가입자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 올해 상반기 인센티브 지급분부터 1포인트당 1원에서 최고 2원으로 조정하여 기존에 비해 많은 혜택(연 최고 7만원)을 가입자에게 지급한다.

탄소포인트제 참여는 동 행정복지센터, 안산시 환경정책과(031-481-2924), 재단법인 안산환경재단(031-599-9417)에 방문 또는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https://cpoint.or.kr/>)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가입할 수 있다.

22번 시내버스, 반월역 연장 운행

반월동 주민 대중교통 편익 확대

안산시는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22번 시내버스 운행을 반월역까지 연장했다. 시화공단을 출발해 안산 시내를 경유하여 동호상가까지 운행하던 22번 시내버스는 4월 22일부터 반월역(삼천리마을)까지 연장 운행한다. 반월역에서 안산시내로 운행하는 시내버스는 99번과 66번 노선이 있으며 66번 노선은 1일 2회 운행하여 사실상 1개 노선이 반월역 인근 주민 수송을 담당해 왔으나 이번에 1일 25대 112회 운행하는 22번 노선이 반월역으로 연장운행하게 되어 주민 교통편의는 물론 4호선 전철 환승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 문의 : 안산시 대중교통과(031-481-2955)

2019년 개인지방소득세

5월1일부터 31일까지 신고 · 납부

안산시는 2018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를 동시에 신고 · 납부해야 한다.

신고 · 납부 방법은 국세청 전자신고납부시스템인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전자신고 후 위택스로 연계하여 납부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납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또한 지방세 인터넷 신고납부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서도 신고 · 납부할 수 있다.

◇ 문의 : 단원구 세무1과(031-481-6187)



시민이 주도하는 기후 변화 대응

안산시민햇빛발전조합, 5년간 태양광발전소 21기 건립



△주민참여형 태양광 확산 선도사업 1호 발전소

화창한 봄날이라는 표현이 어색할 만큼 미세먼지 없는 맑은 하늘 만나기가 쉽지 않다. 미세먼지는 산업활동으로 인해 만들어지는 화학물질이며 탄소화합물과 금속화합물 등의 유해성분들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구성입자가 매우 작은 초미세먼지는 휘발성유기화합물 등과 같은 오염물질과 섞여있어 인체에 매우 해롭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미세먼지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석탄 화력과 심각한 온실가스 문제, 핵발전소의 위험성 등 기후변화와 심각한 에너지위기 시대의 대안을 찾아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을 찾았다.

2012년 12월 출범한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은 시민이 주체적으로 지역의 신재생에너지원 확대를 통하여 기후 변화 대응과 에너지 전환을 실현하는 태양광발전 사업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2013년 5월 안산시 호수동에 건립한 안산햇빛발전소 1호기는 호수동민 스스로가 협동조합에 출자하여 전국에서 최초로 세워진 시민햇빛발전소로 지구온난화 시대, 화석에너지와 핵에너지로부터 안전한 미래를 만들기 위한 시민들의 의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18년 12월까지 제21호기의 시민참여형 태양광발전소를 지역에 세웠다. 21개소의 발전소 용량은 약 2.5메가 규모다.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이창수 이사장은 “환경운동을 하면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하게 되었다. 태양광발전사업을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지역주민 참여의 폭을 넓히고, 발전 수익이 주민에게 돌아가는 선순환 구조의 협동조합 형태가 좋겠다고 생각했다. 현재 약 60조원 규모의 발전시장에서 수백만 시민들이 에너지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아파트 단지 옥상에 햇빛발전소를 설치해서

전기를 생산하고 생산된 전기의 일부는 주민이 사용한다. 남은 전기는 한전과 발전소에 팔아서 수익을 얻는다. 그 수익은 조합원으로 가입한 시민에게 배당금으로 나눠준다.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은 친환경적으로 전기도 생산하고 조합원이 수익도 가져가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 850여 명의 조합원이 가입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소득 양극화, 재벌 위주의 경제체계 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도 공유경제 체제를 확산시키는 것이 필요하며, 대안 중 하나인 협동조합형태가 좋겠다”고 말했다.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은 정책개발 및 지역연대사업, 에너지취약층 지원사업, 안산희망재단 지역사회 후원, 시민 에너지 교육 등 꾸준히 지역사회 기여에도 참여하고 있다.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조합원으로 가입 후 시민펀드에 가입하면 2년간 연4.2%, 5년간은 연4.5% 확정금리를 적용해 수익금을 배당하고 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에 문의하면 된다.

◇ 문의 :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031-483-3428)
송민아 명예기자_junseo1000@hanmail.net

전기자동차 한 대 장만해요

전기차 한 대 구입시 최대 1천600만원 보조금 지원... 200대 추가 보급 예정

안산시가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차량구입 지원금을 늘리고 있어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시는 전기차 확산이 미세먼지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고 보고 경기도 타 시군 중에서 가장 많은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전기자동차 국비 보조금은 1천2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삭감됐지만, 시가 지원하는 보조금은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증액됐다. 차량 한 대를 구입할 때 최대 1천600만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이는 경기도 타 시군에 비해 안산시 지원금이 적게는 100만원, 많게는 200만원 많은 것으로 시는 이를 위해 32억7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앞으로 200대를 추가 보급할 예정이다.

안산에는 현재 전기충전소 40대와 전기완속충전기 68대 등 모두 108대의 충전장치가 설치돼 있다. 전기충전소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와 안산 시청, 롯데마트, EV충전소, 홈플러스, 안산문화예술의전당, 한국전력공사, 신안산대학교, 와~스타디움 등 타 도시에 비해 많은 곳에 설치돼 있어 전기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한다.

전기차는 안산시에 공고일(2019년 2월 8일) 이전부터 주소를 둔 개인이나 법인사업자 누구나 구매 신청이 가능하며, 제조·판매사가 환경부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 사이트(ev.or.kr/ps/main)에서 신청하면 된다.

또한, 전기차 구매자는 올해까지 환경부에서 완속충전기 설치비를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전기차충전소 사이트(ev.

or.kr · 1661-0970)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시는 미세먼지 등 대기질 개선을 위해 전기자동차 보급 정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면서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고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데도 최우선인 정책인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청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기자동차를 이용하는 김동준씨는 “장점으로 손꼽을 수 있는 것은 경비가 절약이 된다는 점이다”면서 “400km까지 주행 가능한 차의 방전 직전 배터리 충전비용은 9천원에 불과해, 9만~10만원이 쓰이는 일반차보다 저렴하다”고 말했다.

김씨는 또 “미세먼지 등 문제가 많은데 환경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며 “안산시에서는 충전소가 많아 불편하지 않지만, 고속도로를 주행할 때는 3~4분이면 주유가 끝나는 일반차에 비해 전기자동차는 최소 30분이 걸리는 단점이 있다. 가

득 충전하려면 고속충전은 1시간 이상 걸리는데, 고속도로 휴게소는 30분만 충전하도록 규정돼 있어 가득 충전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하소연 했다.

완속충전으로 가득 충전하기 위해서는 7시간 가량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불편함은 더욱 커진다. 하지만 경제적인 도움이 워낙 커 당분간 전기자동차의 수요는 계속해서 늘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전기차충전소 사이트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운영 중인 앱(app)을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받아 사용하면 되며, 전기차 보급 관련 정보는 안산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등록일 2월8일자)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문의 : 안산시환경정책과(031-481-2894)
김효경 명예기자_poet-hk@hanmail.net



안산시청에서
충전 중인 전기자동차



와~스타디움에 설치돼 있는 전기충전기



안산시, 정장 무료 대여 ‘청년 취업 홈런 옷장’ 운영 청년구직자 면접시 1인당 연 5회 가능

청년구직자의 취업을 응원합니다!

안산시 청년 취업 홈런 옷장 운영

청년 구직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 안산시가 면접정장을 무료로 대여드립니다!

- 지원대상** 관내 18세 ~ 39세의 청년 중 면접 응시예정자
- 지원내용** 면접용 정장 일체(셔츠, 타이, 구두 등)
- 이용횟수** 1인 연 5회까지 가능
- 대여기간** 수령일로부터 3박 4일
- 신청방법** 안산시 홈페이지 (분야별 정보-경제/일자리-취업정보-청년취업홈런옷장)
- 문의** 안산시 일자리센터 ☎031-481-2930

안산시에서 청년 구직자의 손을 잡아주는 정책을 내놓아 관심을 끈다. 청년 구직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취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시에서 면접용 정장 무료 대여사업을 시작한 것이다.

안산시는 (사)열린옷장과 협약을 체결하고 ‘청년 취업 홈런 옷장’ 사업을 4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사)열린옷장은 응원이 담긴 정장을 기증 받아 꼭 필요한 청년에게 공유함으로써, 취업비용 중 면접복장의 부담을

줄이고 그 수익을 다양한 청년응원사업을 통해 환원하는 비영리단체이다.

청년 취업 홈런 옷장 사업은 취업난으로 취업 준비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경제적 부담이 커진 청년 구직자들의 면접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신설한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다. 지원대상은 관내 거주하는 18~39세 청년으로 면접 응시예정자이면 된다.

1인당 연간 5회까지 면접용 정장 일체(셔츠, 타이, 구두 등)를 대여할 수 있고, 대여기간은

수령일로부터 3박4일이다. 이용 요금은 시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택배비 포함 전액 무료로 제공된다. 다만 대여기간 연장 또는 대여 연체 시 발생하는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서비스를 이용할 청년 구직자는 안산시 홈페이지에서 메뉴 ‘분야별 정보-경제일자리-취업정보-청년취업 홈런옷장’을 순서대로 들어가 신청하면 된다. 최초 이용할 경우에는 (사)열린옷장을 직접 방문하여 면접복장을 본인 체형에 맞게 보정해야 하며, 이후에는 온라인 신청 후 택배로 수령 및 반납하면 된다.

안산시 청년정책을 연구하고 제안하는 역할을 해오고 있는 안산청년네트워크 문지원 운영위원장(안산시 청년정책위원회 부위원장)은 “서울을 비롯해 여러 지역에서 진행하는 면접 정장 무료 대여사업이 안산에서 추진되는 것을 환영한다”며 “청년들의 구직 과정에 경제적 부담이 큰데, 이 사업을 통해 안산 청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 같고, 이번 사업을 계기로 시에서 청년들을 지원하는 사업이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 일자리정책과 관계자는 “사업이 시작된 지 2주 만에 30명의 청년 구직자들의 반응이 있었다”며 “청년들의 면접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보다 많은 청년들이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을 홍보하고 이후에도 더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안산시 일자리센터(031-481-2930)로 문의하면 된다.

◇ 문의 : 안산시 일자리정책과(031-481-2277) / 황정욱 명예기자_loosedom@hanmail.net

안산시, 미세먼지 저감 위해 시민과 손 잡았다!

‘미세먼지 없는 안산을 위한 100인 원탁 토론회’ 개최

미세먼지는 최근 시민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이슈이자 해석이 다른 다양한 원인 때문에 ‘공포’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미세먼지(pm10)란 대기 중에 섞여 있는 다양한 크기와 성분들의 먼지 중 10마이크로미터보다 작은 먼지들(머리카락의 약 1/5~1/7)을 말한다. 또 2.5마이크로미터보다 작은 먼지들(머리카락의 약 1/20~1/30)은 초미세먼지(pm2.5)라고 한다.

경기연구원의 수도권 미세먼지 집중배출지역 분석에 따르면 안산시의 미세먼지 배출량은 미세먼지 2천266톤, 초미세먼지 1천81톤으로 나타났다. 안산시의 미세먼지 배출량이 경기도 전체 배출량의 26%나 차지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 안산시와 안산시민들이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함께 나섰다. 안산시에서 후원하고 안산환경재단, 안산의제21, 안산환경운동연합, 화학물질·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안산시민네트워크, 안산녹색환경지원센터가 공동주관으로 4월 20일 오후 1시 안산시청 대회의실에서 ‘미세먼지 없는 안산을 위한 100인 원탁 토론회’를 개최했다.

150여 명의 시민, 공무원,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원탁에 둘러앉아 미세먼지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공유하는 워크숍을 진행하고, 미세먼지 증가로 인해 달라진 각자의 일상과 안산을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가자들은 이어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에 대해 원탁별로 토의하기 시작했다. 에너지 전환을 위한 재생에너지 사용, 에너지 절약, 배출가스를 저감하기 위한 자동차 줄이기와 대중교통 활성화, 도심 공원 등 숲 확대, 공단 대기오염 규제 강화, 쓰레기 줄이기 등 다양한 방안들을 놓고 토론했다.

토론을 진행한 후 원탁별 결과물을 기록해 각 위치에 비치해두고 참가자들이 직접 돌아다니며 다른 조의 결과도 공유하고 자신의 의견을 보태는 방식의 프로그램을 이어갔다.

미세먼지 없는 안산을 위한 100인 토론회의 마지막 프로그램은 토론의 결과물로 모인 11가지 정책을 참가한 시민들의 이름으로 시에 제안하는 것이었다. 원탁회의에서는 ‘관내 재생에너지 사용 산업체에 인센티브 제공’, ‘전기이륜차 변경 시 지원/자전거 도로 실질적인 확대’, ‘대중교통 이용 독려 시스템 마련’, ‘1학교 1도시숲 갖기 운동’, ‘쓰레기 제로 안산 5개년 계획 수립’ 등 공단 대기오염, 재생에너지 활용, 대중교통 이용 확대, 쓰레기 절감, 녹지 확대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이 구체적이고 신선한 아이디어로 제출되어 눈길을 끌었다.



△ ‘미세먼지 없는 안산을 위한 100인 원탁 토론회’에서 테이블 진행자가 워크숍을 이끌고 있다.

이번 미세먼지 원탁토론회를 주관한 안산의제21 윤기준 공동대표는 “4월 20일 진행된 100인 원탁토론회 이후에도 5월부터 5개월 동안 마을별로 주민토론회를 통해 ‘안산형 미세먼지 대응방안 도출’을 위한 의견 수렴을 할 것”이라고 했다.

또 윤 대표는 “미세먼지 저감 관련한 전문가들을 초빙해 정책 토론회를 갖고 주민토론회를 통해 도출된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 및 정책제안 내용을 바탕으로 안산시 미세먼지 대응 방안을 도출할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원탁회의에 참가한 한 시민은 “처음에는 내가 여기 와서 뭘 한다고 해도 별 의미가 없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참여해보니 이렇게 정책을 만들고 추진하는 과정은 시민들이 알아야 하고 참여해야 한다는 것을 배워갈 수 있어서 좋았고, 이런 시스템이 학생들, 우리 아이들이 참여하는 과정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주최측은 이날 원탁토론회에 참가한 모든 시민에게 ‘미세먼지 명예 정책기획단원증’을 수여했다. 이후 미세먼지 개선을 위한 정책개발과 기획사업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 문의 : 안산의제21(031-483-0221)
황정욱 명예기자_loosedom@hanmail.net



생생도시 안산 방송됐다!

안산시, 전국 최초 대학생 '반값등록금'

KBS 외 (4월 17일)
안산시 대학생 반값등록금

지역화폐 확대...청년배당 등 지급

KBS 뉴스9 (4월 1일)
경기지역화폐 본격 발행

Q. 올해 해외 초청 프로그램 특

TV조선네트워크뉴스 (4월 17일)
경기도 체육대회 및 거리극축제 홍보

주민보다 많은 염소... '사이렌'과 함께 "

MBC 뉴스데스크 (3월 31일)
풍도 염소몰이 화재

안산톡톡

시정소식지의 새 이름 '안산톡톡' 시민 공모로 선정

시정소식지의 제호 공모부터 편집까지 시민 직접 참여

톡톡 두드리면 안산에 대한 발 빠른 정보와 톡톡(talk talk) 튀는 토크까지 쏟아진다

안산시 시정소식지의 이름이 '안산톡톡(talktalk)'으로 변경돼 이르면 오는 6월호부터 사용될 예정이다.

시는 시정소식지의 새 이름에 시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한 달에 걸친 명칭 공모와 두 차례의 심사 그리고 시민 선호도 조사를 통해 명칭을 선정했다.

안산시 소속공무원과 시민을 대상으로 지난 1월 23일부터 2월 22일까지 한 달간 명칭공모를 실시한 결과 총 1천271건(공무원 261건, 시민 1천10건)이 접수됐다. 이를 대상으로 소식지 명칭 심사위원회와 편집위원회가 두 차례의 심사를 진행해 최종 10건을 선정하였으며, 선정된 명칭을 시청 홈페이지와 SNS를 활용해 시민 선호도 조사를 실시했다.

1천200여 명이 참여한 선호도 조사결과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안산톡톡(talktalk)'이 선정되었다. 안산톡톡은 '톡톡 튀는 이야기(talk)'가 가득한 소식지, '톡톡(talk talk) 두드리면 안산에 대한 발 빠른 정보와 톡톡(talk talk) 튀는 토크까지 쏟아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정소식지의 새 이름인 '안산톡톡'에는 시민과 소통을 강화하고자 하는 안산시의 의지도 담겨 있다"며 "일방적인 시정홍보보다는 동네소식, 독자투고, 동호회 소개 등 이웃의 소소한 이야기를 통해 시민이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는 소식지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산시의회 추연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시정소식지 · 인터넷신문 발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4월 12일 제25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의결 됐다.

개정조례안은 그간 시정소식지의 명칭으로 사용되어 오던 '브라보 안산'을 '안산톡톡'으로 인터넷신문의 명칭을 'e-브라보안산'에서 'e-안산톡톡'으로 각각 변경하고 그간 시정소식지의 편집위원 위촉 대상자격을 언론 · 출판 실무 경력자, 신문방송 전공자로 제한해 오던 것을 실질적인 구독자인 일반시민까지 확대 위촉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또, 시정소식지편집위원회 존속기한도 올해 말에서 2024년 말까지로 연장됐다.

추연호 의원은 "개정 조례안에는 시정소식지의 명칭을 시민 정서에 부합하는 참신한 이름으로 변경하자는 여론에 따라 시민 공모와 선호도 조사를 통해 선정된 제호를 조례에 담았다"며 "시민 참여와 소통을 강화하고자 소식지 편집위원회에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게 했다"고 밝혔다.

시정소식지 제호 선정에 참여한 길지영 시정소식지편집위원은 "시민과 함께 동행하는 시정소식지의 제호가 시민이 공감하는 참신한 명칭으로 변경되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쁘다"며 "앞으로 톡톡 튀는 시각으로 젊은 세대까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시정소식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피력하기도 했다.

의결된 조례안은 경기도 사전보고를 거쳐 5월 중 공포될 예정이며, 새로운 제호의 시정소식지는 다음호인 6월호부터 발행할 계획이다.

◇ 문의 : 안산시 공보관(031-481-2042)

로기다니를 찾아라!

제65회 경기도체육대회 마스코트인

로기다니를 찾아라! EVENT

안산시 곳곳에 숨어 있는 로기다니를 찾아 인증샷을 남기고
경기도체육대회&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를 응원해주세요!
(추첨을 통해 맛있는 아이스크림과 피자를 선물로 드립니다^^)

로기다니를 찾아라!

안산시청 앞, 안산문화광장, 중앙역 앞, 노적봉공원,
와~스타디움, 안산 문화예술의전당, 올림픽 기념관, 상록구청, 단원구청,
갈대습지공원, 중앙도서관, 상록청소년수련관, 농협 안산시지부

참여방법

01 안산시청 공식 페이스북 좋아요 누르기

02 안산시에 숨은 로기다니 조형물 or 판넬 찍기

03 인증샷과 함께 응원메시지 댓글로 남기기

Tip. 본인이 같이 나온 사진일수록 당첨확률 up!
단체의 경우, 사진에 로기다니와 함께 나와야 해요!

참가부문 개인, 단체(5인 이상)

당첨자 발표 2019. 5. 10.(금)

경품 개인 - 배스킨라빈스 파인트 아이스크림 (20명)
팀 - 도미노피자 2판 (5팀)
※ 모든 경품은 모바일교환권으로 발송됩니다.

경품발송일 2019. 5. 17.(금)

이벤트 기간 2019. 4. 15.(월) ~ 5. 8.(수)



‘안산에서 핵꿀잼으로 사는 법’ 유튜브 공모전

1~3분 영상물 5월 10일부터 27일까지 접수



안산시는 ‘안산에서 핵꿀잼으로 사는 법’이라는 주제로 ‘유튜브 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

‘나도 할 수 있다!’는 제목으로 진행되는 공모전은 안산의 먹거리, 놀거리, 볼거리 등 안산과 관련된 내용을 자신만의 개성을 담아 자유로운 형식으로 만든 작품을 대상으로 하며, 5월에 개최되는 안산국제거리극축제, 경기도체육대회 및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도 주제로 제작 할 수 있다. 시는 1차 심사에서 17편을 추린 뒤 2차 심사를 통해 최우수상(상금 70만원·안산시장상), 우수상(40만원), 장려상(20만원·5편), 입선(10만원·10편)을 각각 선정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전은 전 세대에서 하나의 직업으로 자리 잡은 1인 크리에이터, 유튜버가 대세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을 반영해 다양한 시민의 아이디어를 시정 홍보에 접목하기 위한 취지

로 마련됐다. 안산과 관련된 내용이라면 전국 어디서든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개인 또는 팀(2명 이내)으로 1~3분 분량의 영상물을 제출하면 된다.

공모전 공고는 4월 12일 안산시 홈페이지에 게시됐고, 접수는 5월 10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되며, 시 홈페이지에서 관련 서류를 내려 받아 이메일·우편 또는 직접 제출하면 된다.

1차 심사는 시 자체로, 2차 심사는 안산시 유튜브 채널 조회 점수(20%)와 안산시 페이스북 댓글 투표 점수(20%), 전문가 심사 점수(60%)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공모전에 당선된 작품은 안산시 유튜브, 안산시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 6개의 안산시 SNS, 시 홈페이지 등에 활용될 예정이며, 수상작은 오는 6월 20일에 안산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이 안산만의 이야기를 자유로운 상상력과 다양하고 창의적으로 표현해 안산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 홈페이지(<https://www.ansan.go.kr/>)를 참조하거나 안산시 공보관(031-481-3759)에 문의하면 된다.

생생한 안산의 5월, 유튜브로 생생하게 중계

2019 안산국제거리극축제 및 제65회 경기도체육대회 현장중계

안산시가 공식 유튜브를 통해 5월 열리는 대규모 행사를 생생하게 현장중계한다.

5월 4일부터 6일까지 안산문화광장 일대에서 열리는 2019 안산국제거리극축제는 세계적인 거리예술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거리 예술축제다.

시는 현장에 특별 스튜디오를 마련해 MC와 공연배우 등이 특별게스트로 출연해 안산국제거리극축제를 소개하고 세부 공연 일정과 관람 팁 등 알찬정보를 제공한다.

또, 5월 9일부터 11일까지는 제65회 경기도체육대회 현장을 소개한다. ‘생동하는 안산에서 역동하는 경기의 꿈’을 슬로건으로 개최되는 이번 대회는 경기도 31개 시군 1만2천여명의 선수 및 관계자들이 참가하는 경기도 대표 스포츠 축제다.

안산시 공보관은 “안산시 유튜브 현장 생중계는 시를 홍보하는 유용한 매체”라며 “직접 현장을 찾지 못하는 시민들도 현장의 생생함을 느낄 수 있어 시민들의 관심이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청은 PC나 스마트폰을 통해 유튜브에서 ‘안산시 유튜브’를 검색하면 된다.

◇ 문의 : 안산시 공보관(031-481-3126)

펜으로 안산을 찍다! ‘안산 드림펜’ 첫 발걸음
학생기자단 목소리 담은 소식지, 5월 창간호 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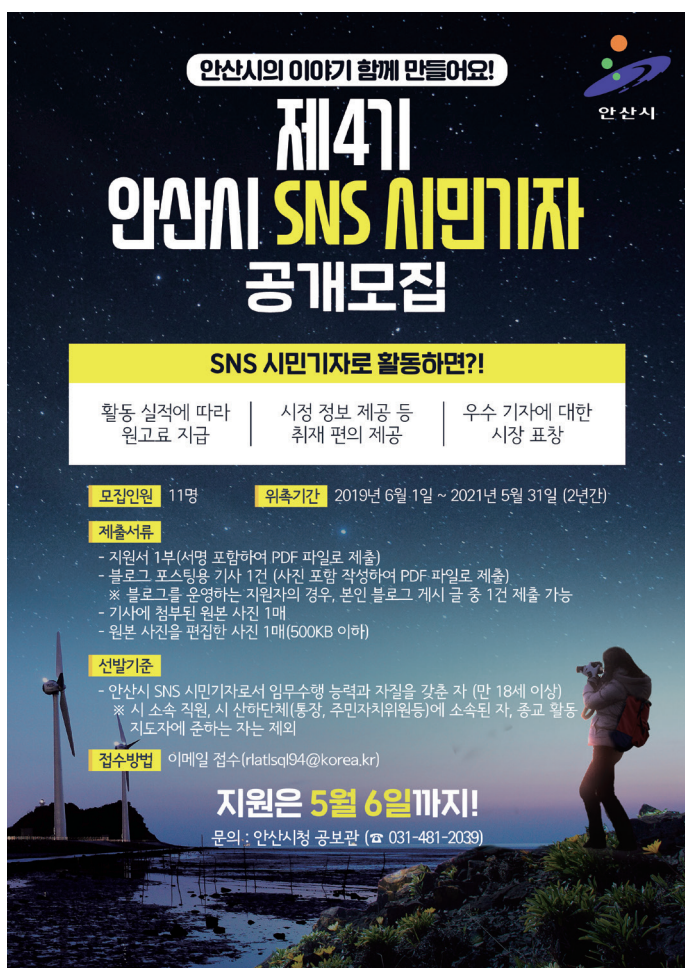
안산시는 ‘안산시 생생드림어 학생기자단’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은 소식지 ‘안산 드림펜’을 오는 5월에 발행한다. 안산시 생생드림어 학생기자단은 올해 1월 발대식에 이어 KBS 인재개발원의 ‘꿈꾸는 방송학교’를 통해 미디어리터러시, TV·라디오뉴스 제작 등 기자 소양교육을 받았다. 4월부터는 블로그에 기사를 작성해 게시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안산 드림펜은 소식지 명칭부터 편집위원 구성까지 모두 학생기자단 스스로 결정했다. 명칭은 김성민(원일중) 학생기자의 제안이었으며, 편집위원은 손현지(성신여대)·이재만(순천향대)·황은세(성포고)·최혜원(원일중)·지은결(초지초) 학생기자 5명으로 구성했다. 이들은 첫 편집회의를 4월 12일에 개최했고, 70여명의 학생기자가 직접 작성한 블로그 기사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알파 정보, 생활 법률, 청소년의 생각을 나누는 ‘청소년 토크 코너’ 등의 내용을 담은 소식지를 제작한다.

안산 드림펜은 일반적인 신문 형태가 아닌, 학생들이 흥미를 갖고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미니북 형태로 발행된다. 소식지에 담긴 기사는 QR코드를 활용해 안산시 공식 블로그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생생한 현장을 담게 될 학생기자단 소식지 발행을 축하하며, 다양한 경험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특히 토크 토크는 청소년의 시선으로 안산시의 정책을 시민에게 알리는데 좋은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산 드림펜은 가정의 달인 5월 초에 창간호가 발행되며, 각 학교와 시청·구청 민원실, 도서관, 청소년 수련관 등 학생들이 자주 찾는 곳에 비치할 계획이다. 집에서 구독을 원하는 학생은 우편으로 받아 볼 수 있다.

◇ 구독신청 : 안산시 공보관(031-481-3759)





숲 해설가로부터 숲에 대한 설명을 진지하게 듣고 있는 어린이들



자연의 재료로 나만의 숲가방을 만들고 있는 어린이들



나무청진기를 들고 나무의 맥박소리를 듣는 어린이

안산시, 숲 체험 ‘안산에서 놀자’ 프로그램 “짱이에요” 학교로 찾아가는 숲 체험 신규 개설, 학생들 ‘큰 호응’

“선생님, 나무는 우리에게 좋은 공기를 주어서 고맙고 착하지요”

“그렇지, 우리 모두 모여서 나무를 안아주고 토닥여주자”
아이들은 나무를 껴안고 토닥여주며 “나무야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 우리가 잘 자라도록 도와줄게”라고 했다.

“그런데 선생님 사람들은 왜 나무를 베요”

“나무로 집도 짓고 배도 만들고 가구도 만들고 종이도 만들고 땀감으로도 사용하기 위해서야. 그래서 나무를 베고 난 후, 그 옆에는 작은 나무를 심어서 자라게 하고 비료도 주고 도와준단다” 초등학교 아이들과 선생님이 숲 체험 해설사와 함께 정겹게 나누는 대화다.

안산시가 4월부터 관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교로 찾아가는 숲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학생들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시가 추진하는 프로그램은 학교로

직접 숲 지도사가 찾아가 학교 근처 숲이나 공원에서 자연생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집 근처에 있는 숲의 가치 및 자연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를 가르치기 위해 마련됐다.

1학급에 2명의 숲 지도사를 배치해 숲 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고 지난 1월에 수요조사를 실시해 접수한 결과 21개 학교, 118개 학급(학생수 3천126명)이 신청을 하는 등 숲·생태 체험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시는 접수 순서 및 숲 체험 장소 등을 고려해 66개 학급을 선정, 1천800명을 확정했고 4월부터 본격적인 프로그램 운영에 들어갔다.

숲에 자생하고 있는 작은 벌레나 꽃 등을 루페(자연관찰용 확대경)로 관찰하고, 나무청진기로 나무맥박소리를 듣고, 숲 거울을 이용해 확대된 숲과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우리가 보

지 못한 또 다른 세상, 하늘과 숲을 관찰할 수 있어 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았다. 또한 자연의 쑥이나 풀잎, 떨어진 꽃잎으로 천가방(에코백)에 물을 들이고 그림을 그려 나만의 숲가방을 만드는 의미 있는 체험을 해 아이들이 즐거워했다.

4월 16일 원곡동 관산공원에서 만난 안산서초등학교 선생님은 “시에 참가를 신청해서 숲체험을 하고 있는데 하루에 한 반씩 돌아가면서 숲 체험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면서 “아이들의 만족도가 높아 내년에도 신청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안산은 전국 제일의 녹지율을 자랑하는 만큼 숲이 많아 도심 속 생태체험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좋다”며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숲 체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문의 : 안산시 녹지과(031-481-2326)
김효경 명예기자_poet-hk@hanmail.net

안산의 벚꽃 길로 놀러오세요

주말을 맞아 만개한 벚꽃 길에 시민들 북적북적

안산천변과 화정천변에 시민들 인산인해

벚꽃이 만개한 안산시내 곳곳에 주말을 맞아 시민들이 넘쳐났다. 주말이었던 4월 13~14일 안산천변, 화정천변, 화랑유원지, 노적봉, 해안로를 비롯한 시내 전역에 만개한 벚꽃은 시민들을 불러냈다. 벚꽃을 그냥 보내기 안타까워한 시민들은 카메라를 들고 나와 추억을 담기에 바빴다. 카메라가 없거나 미처 챙기지 못한 시민들은 스마트폰을 들고 친구와 가족을 찍어주거나 셀카로 자신을 담으며 즐거운 주말을 보냈다.

송호중학교 학부모회가 13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안산천변에서 펼친 동네 꽃길 걷기 행사에는 많은 학부모와 학생, 시민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주민들과 함께 향기 나는 비누, 쟁반받침대, 비즈공예 등을 만들며 꽃길에서 봄의 정

취를 만끽했다. 타투, 아이스크림, 솜사탕, 팝콘 등을 나눠주며 함께 하는 학생들에게는 추억을 만들어 주었다.

같은날 오후 5시부터 호수동 주민자치위원회가 로데오길에서 ‘작은음악회’를 주제로 마을 축제를 펼쳐 흥겨운 시간을 만들기도 했다.

삼삼오오 벚꽃을 구경하기 위해 나온 시민들 중에는 도서관에서 공부하던 학생들이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 벚꽃 길을 걸으며 왁자지껄 웃는 모습이 이색적이었다. 애견을 데리고 산책하기 위해 벚꽃 길에 나온 시민, 벚꽃 앞에서 추억을 담는 연인과 가족, 자전거 동아리의 화정천변 트레킹, 손주를 안고 벚꽃 길을 걸으며 마냥 행복해 하는 할아버지와 할머니 등 많은 시민들이 모처럼 맑게 갠 파란 하늘과 어우러

져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야 여기 벚꽃 참 멋지다”라고 탄성을 지르며 지나가는 자전거 트레킹 족, “여기 계신 여러분은 꽃보다 아름답습니다”라고 말하며 노적봉을 찾은 동네 어르신들 소개한 젊은 엄마 등 해맑은 시민들이 주말을 즐겼다.

사이동 해안로 육교 위에서 벚꽃에 취한 시민들이 “야호! 벚꽃이 아름답다. 우리도 여행 중이야. 하하하” 웃으며 달리는 자동차를 보기도 했다. 때마침 벚꽃 길에는 노점상들이 솜사탕과 뽕튀기, 도너츠 등을 팔고 있어 아이들은 먹는 재미까지 즐기며 벚꽃행렬을 함께했다.

김효경 명예기자_poet-hk@hanmail.net



주말을 맞아 안산천변을 달리고 있는 자전거 동호인



안산천변 보네르빌리지 앞



사이동 해안로 벚꽃 길

**사회적기업**

카페는 제법 손님들로 북적였다. 직접 로스팅한 원두로 커피를 추출하고, 라떼아트를 준비하는 매니저의 손길이 분주했다.

들꽃피는학교는 정규학교를 중도에 그만둔 청소년들을 위해 1996년 홈스쿨링으로 시작된 비인가 대안학교로 만13~19세의 학교 밖 청소년들을 발굴해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한다.

그러나 그룹홈 등 아직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들도 만 18세가 되면 이곳을 떠나 자립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사회에 진출하려면 준비가 필요하고 건강한 시민으로 살아갈 근거와 사회적 연대가 절실히 필요하기에 들꽃피는학교는 사회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졸업생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2014년 6월 들꽃피네카페를 열었다. 조합원들과 협동으로 청소년·청년들이 미래를 준비하는 일터를 만들어주고, 바리스타 교육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 청소년·청년의 진로를 구체화한다. 자립기반을 제공해 삶의 변화와 성장을 이끌며 사회적 약자를 위한 네트워크도 구축한다.

학교 밖 위기청소년들은 이곳에서 바리스타·로스팅을 배운 뒤 장·단기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위탁기관으로 파견근무를 나가거나 커피전문점에서 매니저로 자리 잡는 등 역경을 딛고 사회인으로 성장하고 있다.

“학교 밖에서 쉽게 위험에 노출돼 다양한 어려움을 겪어온 청소년들은 세상에 대한 의심이 많아 자발적으로 무언가를 하는 게 어렵고 포기가 빠른 편이다. 사람 대하는 방법을 몰라 서

청소년의 꿈을 피우는 ‘들꽃피네카페’**커피, 그 이상의 가치 ‘Youth, grow up!’**

▽ 커피교육을 받는 청소년들



툰 아이들이지만 쉽게 지치지 않도록 동기부여를 해주며 세심히 살피고 있다”는 들꽃피네카페 이솔 사업팀장은 “이들 스스로 성장했다고 느낄 때 보람이 크다”고 말했다.

들꽃피네카페에서는 건강한 커피를 만든다는 목표로 최고급 생두를 신선한 상태에서 직접 로스팅한다. 브라질, 에티

오피아, 인도네시아, 탄자니아 원두를 사용하며, 블렌딩 커피 가격은 2천500원으로 저렴하다. 조합원들과 지역주민들은 질 좋은 커피를 마시며 따뜻한 시선으로 이들을 응원한다. 지역 주민들의 가치 있는 소비로 연간 1억여 원의 매출이 발생하는데 수익금은 인건비와 재료비 등 운영비로 쓰이며 나머지는 안산희망재단과 들꽃법인에 기부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또, 커피와 함께 신선한 샌드위치와 계절과일, 떡 등으로 구성된 도시락을 제공하는 케이터링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재호 이사장은 “청소년과 청년들이 피네를 통해 성장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갔으면 한다. 나아가 지역사회가 약자와 함께 살아가는 배려 깊은 지역사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했다.

들꽃피네카페는 명절을 제외하고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 상시 운영한다.

◇ 문의 : 들꽃피네카페(070-4154-2836) / 신선영 명예기자_woghkah@hanmail.net

청년창업의 꿈**안산시 청년큐브를 가다²⁷**

안산시는 경기도의 ‘NEXT 창조오디션’공모 선정을 통해 지역 내 비어있는 상가를 활용해 청년 창업공간인 청년큐브를 조성·운영해오고 있다. 청년의 자립과 성장을 지원하는 청년창업 인큐베이팅 사업에 선정돼 다양한 융복합 실험을 하고 있는 청년들의 꿈을 향한 여정을 소개한다.

소비자의 알권리를 향한 정직한 화장품 ‘㈜올리포유 코스메틱’**윤리적 소비에 ‘가치’를 더하다**

최근 안산시 청년창업 가이드사업에 선정된 ㈜올리포유 코스메틱(올리포유)이 제품 출시를 앞두고 있다.

올리포유는 개인맞춤형 기초화장품을 아이টে으로 2018년 1월 한양캠프에 입주했다. 김기원 대표(사진) 외 화학, 물리학, 생물학, 컴퓨터공학 전공자들이 팀을 이뤄 상품기획, 판매전략, 웹 개발을 맡아 꾸려오던 올리포유는 이번 지원 사업으로 마케팅 팀원을 신규 영입하며 제품 출시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에서 생명과학 전공 후 한양대학교 생명과학분야 대학원에서 석·박사통합과정을 수료한 김기원 대표는 박사논문을 앞두고 창업을 위해 휴학을 했다.

올리포유의 창업 아이টে은 기능, 제형, 향, 원료함량까지 커스터마이징(Customizing, 고객의 요구에 따라 제품을 만드는 맞춤제작 서비스)이 가능한 온라인 기반의 개인 맞춤형 스킨케어 정기구독 서비스다. 스킨케어 구매율이 가장 높은 20~30대 여성을 주 소비자층으로 선정해 지속적으로 개인 피부와 기호에 맞춰주는 스킨케어 제품을 목표로 한 발짝 걸음을 내딛고 있다.

지난 2년간 다양한 업체에서 멘토링을 받고 여러 투자자들의 견해와 조언을 반영하며 진행한 개인맞춤형 화장품은 피부 타입마다 서로 다른 성분의 화장품을 사용해야 한다는 가설로 시제품을 개발해 테스트까지 마쳤다. 그러나 마케팅 비용에 대한 부담과 다양한 제품군에 맞는 생산라인 구축이 어려워진 올리포유는 당장의 판매 사이클을 위한 생존전략으로 맞춤형 제품에 앞서 신제품 ‘리메코스’를 출시했다.

‘리메코스(REMACOS)’는 ‘리메이크(remake)’와 ‘코스메틱(cosmetic)’의 합성어로 ‘피부를 재해석한다’는 뜻이다. 좋은 것은 더하고 피부에 불필요한 것은 뺀 PRA(Premium, Reinterpretation, Addition) 제품으로 화학, 물리학, 생물학 전공자들이 최적의 배합으로 만든 데일리 세럼과 나이트 앰플은 주름·미백개선 이중 기능성 화장품으로 식약처 승인을 앞두고 있다.

제품 인지부터 구매까지 연결되는 소비자의 심리행동에 관심이 많았던 김 대표는 소비자들이 브랜드 인지도보다는 실제 제품 사용 경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한 후 성분을 민감하게 따져가며 사용하는 추세에 집중한다.

유산균 일종인 Bifida 발효물과 난초 추출물이 핵심 원료인 앰플과 세럼은 실리콘, PEG(Polyethylene glycol·화장품에 사용되는 계면제) 계열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 고가의 원료가 들어간 질 좋은 제품을 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출시하면서 소비자의 알권리를 위해 핵심원료 함량까지 정확히 성분을 표기했다.

제품에는 “마케팅을 목적으로 함량을 과대광고하거나 플랫폼과 콘텐츠 채널 등에서 잘못된 상식을 전하며 케모포비아(Chemophobia·화합물 공포)를 조성하는 현상 때문에 소비자는 휘둘릴 수밖에 없다. 부정적인 정보가 확산되는 콘텐츠 월드에서 좋은 제품을 만들고 제대로 된 정보를 알리며 선한 영향력을 주는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다”는 철학이 담겼다.

◇ 문의 : ㈜올리포유 코스메틱(www.remacos.co.kr) /신선영 명예기자_woghkah@hanmail.net



(주)올리포유 코스메틱 출시 제품

세월호 참사 5주기 기억식, 추모객들 ‘뜨거운 눈물’

세월호 참사 5주기를 맞은 4월 16일 오후 3시 안산시 화랑유원지에서 261명의 단원과 학생·교사 희생자를 추모하는 ‘세월호 참사 5주기 기억식’이 열렸다.

기억식은 사단법인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재단이 공동 주관했으며,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문성혁 해안수산부장관 등 정부인사와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국회의원, 추모객 5천명 등이 참석했다.

참사 희생자들의 이름은 잔잔한 음악의 가사와 중앙무대 양쪽에 설치된 대형 전광판을 통해 일일이 불러졌다. 안산시 전역에 추모 사이렌이 울려 퍼지며 희생자 추모 묵념과 함께 기억식은 시작됐다.

유은혜 부총리는 추도사를 통해 “참사 5년이 지났지만

대한민국은 아직 그 많은 희생이 왜 일어났는지 진실을 밝히지 못했다”며 “유가족과 국민들 앞에서 세월호의 완전한 진상규명을 다시 한 번 다짐한다”고 말했다.

장훈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이어진 추도사에서 “참사로 희생된 우리 아이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 함께 한 분들 고맙다”며 “(희생된 아이들 모두)따뜻하고, 밝고, 아름다운 곳에서 친구들과 함께 잘 지내고 있을 거라고, 꼭 그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생존학생 장애인 양은 기억편지 낭송을 통해 “소중한 사람들이 돌아오지 못해 지난 5년이 긴 것 같다”며 “매일 보내지 못할 편지를 쓰고, 용서받지 못할 사과를 해. 우리도 잊지 않을 테니 너희도 우리를 기억해 줘”라고 말했다.

추도사와 장 양의 편지가 읽어지는 동안 기억식에 참석



△ 기억식에 참석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한 시민들도 함께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추도사가 끝난 뒤에는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기억공연이 이어졌다. 성악가 홍일씨의 ‘시간에 기대어’ 성악공연을 시작으로 마임니스트 조성진씨의 마임공연, 배우 전소니씨의 시낭송이 진행됐다. 가수 양희은씨는 상록수를 부르며 희생자를 추모했고, 안산시립합창단의 ‘기억해 그리고 사랑해’를 끝으로 기억식은 마무리됐다.

예술가들이 바라본 세월호 이후의 세상 세월호 참사 5주기 추념전 ‘바다는 가라앉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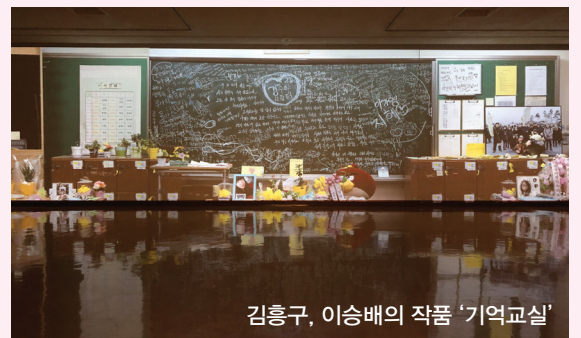
한쪽 벽을 채운 스크린 위로 단원과 기억교실 풍경이 눈앞에 펼쳐진다. 칠판에 빼곡하게 채운 손글씨, 책상 위에 놓인 간식, 창문에 붙은 메모지. 모든 것이 그대로 남은 채 학생과 선생님만 사라진 쓸쓸한 교실을 배경으로 학교 종소리가 들리고 쉬는 시간을 맞는 아이들의 재잘거림이 공간에 웅성거린다. 김흥구, 이승배의 ‘기억교실’ 사진을 영상으로 제작한 이 작품은 어떤 비극이 그 장소에서 벌어졌는지 안타깝게 보여준다.

안산예술의전당 화랑전시관에서 4월 3일부터 4월 16일까지 열린 세월호 참사 5주기 추념전 ‘바다는 가라앉지 않는다’를 찾았다. 4.16재단이 개최한 이번 전시는 세월호 참사 이후 5년간의 흐름을 보여주는 연표와 관련 글, 그림, 사진, 영상 등의 작품으로 꾸며졌다.

전시 주최 측 관계자는 “세월호 참사는 국가와 재난에 대한 우리 생각뿐 아니라 온 감각을 흔들어 놓았고, 우리

가 바라만 보던 대상을 우리 자신이라고 느끼게 만든 사건”이었다며, “전시명 ‘바다’는 ‘배’ 한 척이 아니라 더 넓은 의미를 품고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애도를 넘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한 긴 노력을 이어가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시장 입구에 들어서면 세월호 참사 희생자인 박예슬, 빈하용 학생의 작품과 수학여행 전날 밤 설레는 마음을 그린 심홍아의 만화 ‘조각들’을 만나게 된다. 짐작조차 할 수 없는 참사가 얼마나 다양하고 많은 잠재된 세계를 사라지게 했는지 보여주는 작품들은 관객의 마음을 아프게 두드린다. 믹스라이스는 벚꽃이 핀 교정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의 발랄한 모습을 만화로 그렸다. 참사 이후 접한 자료 사진과 안산의 봄 풍경이 섞인 장면들은 해맑게 춤추는 아이들의 뒷모습이 담겨있지만 세월호 참사와 연결돼 더욱 슬픈 이미지로 다가온다.



김흥구, 이승배의 작품 ‘기억교실’

참사 이후 바람이나 날씨에 민감해진 김지영 작가는 1년간 매일 날씨와 파도의 세기에 따라 그린 드로잉 달력 ‘4월에서 3월’을 선보였다. 작품은 시간이 흐르면서 변하는 감정과 그림에도 불구하고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어떤 변화의 순간을 담아낸다. 전시 큐레이터는 “이번 전시는 예술가들이 드러낼 수밖에 없었던 세월호가 뒤흔 감각을 구체화하는 것에서 출발했다”며 “그런 감각은 앞으로 망각에 저항하고 세월호가 남긴 질문들을 되묻기 위한 기본적인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문의 : 4.16재단(031-405-0416)
송보림 명예기자_treehelper@gmail.com

“1천437명의 목소리, 오늘만은 아이들이 위로받는 하루였길” 4월 음악회, 1천인 합창단이 전한 감동

“이제 4월은 내게 옛날의 4월이 아니다. 이제 바다는 내게 지난날의 바다가 아니다”

무대 전체를 가득 채우고 양쪽 객석까지 내려선 시민 1천437명의 하모니가 하늘 위로 웅장하게 울린다. 간주가 시작되자 세월호 참사 희생자 304명의 이름이 적힌 노란 카드가 하나씩 펼쳐지고, ‘잊지 않을게’라는 노래가 시작된다. 많은 이들의 눈가에 어느덧 눈물이 맺힌다.

4월 13일 화랑유원지 대공연장에서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추모하는 4월 음악회가 열렸다. 615합창단, 평화의 나무 합창단 등 전국에서 모인 다채로운 합창단의 공연은 물론 가수 하림과 장필순의 초청공연에 이어, 마지막으로 1천인 합창단의 ‘천명의 소리’ 공연이 대미를 장식했다.

안산과 전국에서 모인 1천400여 명 시민들이 한 달여 기간 마음을 모아 연습했던 8분 30초의 노래는 목소리만으로 커다란 감동을 불러일으켰다.

이날 개최사를 맡은 이재호 4.16안산시민연대 공동대표는 “이번 음악회가 세월호 참사의 진실규명을 위한 기억의 행동이자, 416안전공원을 위한 청사진이 될 것이며, 생명과 존엄이 최고의 가치로 구현되는 공동체를 건설하는 힘 있는 첫 삽이 될 것”이라며 “삶을 나누는 우리의 노래가 304명의 영혼과 그 유가족, 그들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격려와 치유의 울림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무대에 선 4.16가족협의회 호성 엄마 정부자 씨는 “1천400여 명의 고운 목소리가 우리 아이들이 있는 곳까지 울



4월 음악회 풍경

려 오늘만은 아이들이 위로받는 하루였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다”면서 “참사가 일어난 지 벌써 5년이란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진상규명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무슨 말을 해줘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기성세대 어른들이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혀줘야 안전사회로 나갈 수 있는 발걸음을 뚫 수 있다”며, “현재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설치와 관련된 국민청원을 받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송보림 명예기자_treehelper@gmail.com



우성하이테크 박미경 대표이사

“기초 산업인 ‘뿌리 산업’은 여전히 중요하다!”



우성하이테크 건물 외관



우성하이테크 박미경 대표이사

안산시 역사와 한 길을 걷고 있는 안산 스마트허브(반월국가산업단지)는 안산 시민들의 일터이자 안산시와 한국 경제의 성장 동력이기도 하다. 하지만 최근 경기침체에 따른 제조업의 성장둔화와 경쟁력 약화, 기반시설 낙후로 인한 생산성 저하, 입주기업의 영세화·소기업화 등 어려움 속에서 혁신과 재생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경기침체와 산업단지의 어려움 속에서 특히 ‘뿌리 산업’의 중요성은 여전히 강조되고 있다. 반도체, 자동화장비 등 부품소재 전문기업으로 뿌리 산업을 지켜오면서 직면한 어려움을 부품 국산화 개발 및 수출 판로 개척으로 노력하고 있는 기업을 찾았다. 우성하이테크 박미경 대표를 만났다.

Q 우성하이테크에 대해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산업의 가장 기초적인 부분을 맡고 있다. 공장에서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계가 필요한데 그 기계와 기계 속 모든 부품을 만드는 일을 한다고 보면 되는데 이를 뿌리 산업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우성하이테크는 반도체, LCD, LED, 자동화장비, 산업기계, 정밀부품 가공전문기업이다. 2002년 설립해 축적된 기술력과 지속적인 설비투자과 연구로 정밀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또한 지속적인 품질혁신과 연구개발로 고객만족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2010년에는 혁신중소기업, 그리고 ISO 9001 인증을 받기도 했고, 반도체 장비, 디스플레이 장비, 2차 전지, 자동화장비(로봇 등), 군수 쪽 부품도 생산하고 있다.

Q ‘뿌리 산업’이 요즘 어렵다고 하는데 어떠신지 궁금하다.

내수가 많이 부진하기 때문에 대기업들은 대부분 해외로 나가 뿌리 산업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자본력이 있는 중견기업 이상의 기업들이 뿌리 산업에 투자해서 표준제품을 개발하고 생산하면 좋은 텐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대량생산이 가능하려면 자본력이 필요한데 자본이 있는 기업들은 뿌리 산업에 투자하지 않거나 인건비를 이유로 해외로 나가는 경우가 많다. 중소기업은 기술력이 있어도 자본이 부족해서 설비투자를 하기 어렵고, 대량생산이 어려워 가격경쟁에서 불리한 상황이다.

Q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어떤 노력들이 있는지?

기업연구소 등 연구소와 연계해서 특정 산업 부분에서 기계 연구 및 기계, 부품의 설계가 필요할 때 의뢰를 받아 샘플을 제작하는 일을 한다. 주어진 설계와 요청에 맞게 실제 실험을 하고 연구를 통해 샘플을 만들어 낸다. 정밀한 기술과 데이터가 필요하다.

부품을 개발, 생산하는데 있어 ‘부품 국산화’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수입에 의존하는 부품들을 연구개발해서 부품에 대한 샘플을 만들어 내고 생산을 해내는데 성공하면

그 부품은 국산화되는 것이다.

Q 중장기적으로 발전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것이 더 있다면?

부품 국산화 개발 및 수출 판로 개척은 우성하이테크의 중요한 중장기 사업방향이 다. 군수 산업에서 비행기를 예를 들어 보면 제품 자체를 수입에 의존하다보니 그 부품 또한 대다수 수입한다고 보면 된다. 그러다보니 사용 중 일부 고장 나거나 노후되는 부품을 대체해야 하는데 하나하나 따로 수입을 통해 구하기가 어렵다. 당연히 가격 문제도 따라 온다.

이런 경우 부품 국산화에 대한 의뢰가 온다. 어려운 부분이다. 누군가 해놓은 것이 아니며 다품종 소량생산으로 가기 때문에 쉽지 않지만 시도해왔다. 국방기술품질원에 등록이 돼서 성공적인 부품개발을 하기도 했다.

그리고 수출이 중요하다. 우성하이테크도 일본에서 한국에 들어와 있는 반도체 장비 제작 업체에 간접수출 하고 있다. 정밀 절단 블레이드, 슬라이싱 머신, 반도체 인쇄회로 등 일본 반도체 업체들의 핵심부품을 만들어서 수출한다.

Q 중요한 가치나 비전이 있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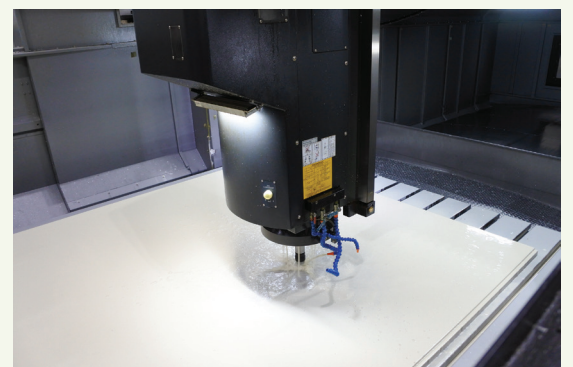
우성하이테크는 차별화된 전략과 고객만족을 추구하고 있다. 수많은 경쟁사들 속에서 품질 경쟁과 가격 경쟁에 우위를 가져갈 자신이 있다. 경쟁사들과의 경쟁뿐만 아니라 철저한 품질관리로 고객중심적인 사고를 항상 중심에 두려고 한다.

뿌리기업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설계에서 제작까지 전 공정을 추구하는데 있어 역량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오랜 경험을 축적한 개발 엔지니어를 통한 경쟁력을 구축하고 있다.

Q 시민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

인건비는 해마다 올라가는데 경기가 안 좋은 현실이다 보니 영세한 기업체들의 수익은 계속 떨어진다. 기초 산업인 뿌리 산업이 흔들리고 있어 갑갑한 상황이다. 뿌리 기업들이 다 망가진 후에 좋은 정책을 펼친다 해도 재생이 어렵다. 뿌리 기업들에 대한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며 적극적인 투자 또한 이뤄졌으면 한다. 우리 기업들도 경험을 축적하고, 기술력을 쌓는 등 내실을 다지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안산시와 시민들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문의 : 우성하이테크 (031-491-1154)
황정욱 명예기자_loosedom@hanmail.net



▷우성하이테크에 설치된 제조설비 ‘머시닝센터’



2019 안산국제거리극축제

5월 4일~5월 6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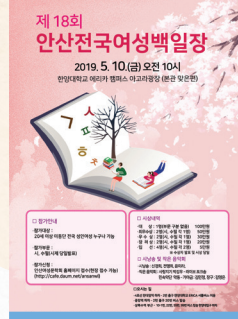
- 안산문화광장 및 안산시 일대
- 안산문화재단(080-481-4000)



필(必)환경 축제에서 안전하게 만나요♥

오는 5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안산문화광장에서 열리는 안산국제거리극축제 '아시아 거리예술의 메카'를 비전으로 삼아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필환경 + 안전 + 축제'라는 목표로 모두가 안전한 친환경 축제의 청사진을 밝혔다. 거리와 광장을 무대 삼아 도시민의 삶의 이야기를 예술로 풀어내는 우리나라 대표 거리예술축제인 안산국제거리극축제는 예술 뿐 아니라 친환경, 다문화, 소통과 화합 등 축제의 도시 안산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화두를 포용할 예정이다.

2019안산국제거리극축제 기간 중
안산문화광장 전면 교통통제 안내
2019. 5. 3.(금) 00:00 ~ 5. 7.(화) 04:00
네스앙스(고릴라극장) 사거리 ⇄ AW컨벤션 사거리 양방향 전면
※ 5. 3.(금) 금요일 출·퇴근시 우회도로 이용



제18회 안산전국여성백일장

5월 10일(금)

- 한양대ERICA캠퍼스 아고라공원
- 전국여성응모자 대상으로 백일장 개최 (현장접수)
- 안산여성문학회(010-9153-3056)

제97회 어린이날축제 '오월나라'

5월 5일(일) ☑ 10:00~16:00



- 안산 호수공원
중앙광장 야외무대
-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가족과 함께하는 놀이마당,
신나는 공연
- 안산시 여성가족과
(031-481-2308)

제65회 경기도체육대회



5월 9일~5월 11일

- 개회식 : 5월 9일(목) 18:00
- 안산 와~스타디움
- 경기도민체전TF팀 (031-481-6489~4497)

[경기도체육대회&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 생동하는 안산에서 역동하는 경기의 꿈!

1천330만 경기도민이 하나 되는 화합의 장인 제65회 경기도체육대회와 제9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가 살맛나는 생생도시 안산에서 개최된다. 경기도체육대회는 31개 시·군 선수단 1만2천여 명이 참가해 5월 9일부터 11까지 3일 동안 안산 와~스타디움 등 34개 경기장에서 24종목의 경기가 펼쳐지며, 장애인체육대회는 5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 동안 17개 경기장, 17개 종목별로 3천600여 명의 선수 및 임원, 보호자가 참가한 가운데 올림픽 기념관에서 열릴 예정이다.

제12회 세계인의날 축제

5월 19일(일) ☑ 11:00~17:00

- 안산문화광장 ② 기념식, 세계문화 퍼레이드, 세계 전통공연, 세계음식 체험부스 등
- 안산시 외국인지원과(031-481-3298)

국경 없는 마을, 안산에서 즐기는 세계인의 날!

국경 없는 마을 안산에서 제12회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가 5월 19일에 안산문화광장에서 개최된다. 안산은 107개국 8만6천여 명(2019. 1월 기준)의 외국인이 거주하는 국내 최대 다문화 도시이다. 매년 세계인의 날(5월 20일)이면 각국 외교사절과 내·외국인이 함께하는 기념행사로 다양한 문화를 나누고 공동체 의식을 다지는 축제가 열린다. 한편, 우리나라 유일의 다문화마을특구인 원곡동에 방문하면 이색적인 풍경과 다채로운 외국음식을 맛 볼 수 있으니 꼭 한번 방문해 볼 것을 추천한다.

'도시의 ...
푸른 ...
가정의 달 5월, ...

온 세상이 초록으로 물들고 꽃
화사한 꽃과 다채로운 행사가 집박
대부도에 활짝 핀 유채꽃과 1
안산국제거리극축제와 경기도민체
안산에 가득하다. 만

가정의 달 5월 ...

※ 일정은 기상 등 상황

올해의 관광도시 선포식

안산시는 4월 4일 서울 코엑스에서 '2019 올해의 관광도시' 선포식을 개최했다. 시는 안산국제거리극축제, 경기도민체전 등 다양한 5월 행사를 비롯해 2019 안산 김홍도축제 개최, 2020 안산방문의 해 사업, TV·라디오·SNS 온라인 홍보 등 공격적인 관광홍보마케팅을 추진한다. 아울러 관광객 유치와 관련 산업 확장을 통해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를 이끌어 내고, '관광도시 안산'의 이미지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풍부한 생태자원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관광도시로 도약하겠다"는 포부와 함께, "오늘 선포식을 시작으로 명실상부한 수도권 최고의 관광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다양한 관광사업 추진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의 관광都市는 관광 잠재력이 큰 도시를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경기도에서는 31개 시·군 가운데 안산시가 유일하다.



청소년의 달 기념 행사 '열정유(有)'

5월 19일 (일) ☎ 15:00~21:30

- ☎ 단원청소년수련관 ☎ play 참여 체험 공연ZONE운영, 청소년동아리 공연 등
- ☎ 안산시청소년재단(031-412-1722)



제23회 성호문화제

5월 25일~5월 26일 (일) ☎ 10:00~17:00

- ☎ 성호기념관 및 성호공원 일대
- ☎ 송모제, 전통민속놀이 체험마당, 성호백일장 실학골든벨 등
- ☎ 안산문화원(031-415-0041)



실학과 전통문화의 만남

제23회 성호문화제가 5월 25일부터 26일까지 2일간 성호기념관 및 성호공원 일대에서 개최된다. 실학과 전통문화의 만남인 성호문화제는 안산시 일동에 살면서 성호사상과 실학을 완성시킨 성호 이익 선생을 기리는 문화축제로, 다양한 행사 프로그램과 성호 이익 선생의 삼두회를 기리는 삼두회 체험마당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성호문화제 기간 동안에는 성호기념관 무료입장이 가능하다.

오아시스,
터 안산'
안산에서 즐기자!

이 활짝 피는 신록의 계절 5월.
으로 나오라고 끊임없이 유혹한다.
.04km² 면적의 안산갈대습지,
제전 등 많은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곳까지 갈 필요 없다.

안산에서 즐기자!

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문화장경다리 예술열차 안산선



5월 29일 (수) ☎ 17:00~19:00

- ☎ 한대앞역 광장
- ☎ 문화가 있는 날 특화프로그램 시민들과 함께하는 공연 및 소축제
- ☎ 안산문화재단(080-481-4000)



제9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5월 23일~5월 25일

- ☎ 개최식 : 5월 23일(목) 16:00
- ☎ 올림픽기념관
- ☎ 경기도민체전TF팀 (031-481-6489~4497)

상록수 백일장 및 시낭송 대회



6월 1일 (토) ☎ 10:00

- ☎ 노적봉 장미공원 (현장접수)
- ☎ 가족대상의 백일장 및 시낭송 대회
- ☎ 한국문인협회 안산지부 (031-405-5999)

대부도 유채꽃밭 보러오세요!

안산시 대부해양관광본부 청사(단원구 돈지섬1길 10) 주변 유희지(시유지 등) 4만 5천여m²에 유채꽃밭을 조성, 5월이면 만발해 시민과 관광객의 눈길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노란 물결로 장관을 이룬 유채꽃밭은 산책로와 어우러져 방문객들에게 화사한 봄의 정취를 선사하면서 좋은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니 꼭 한번 방문해 볼만 하다. 가족끼리 굳이 멀리 가지 않아도 대부도에서 유채꽃밭을 거닐며 사진촬영 등 소중한 추억을 담을 수 있다. 또한, 대부도에 방문하면 해솔길도 꼭 한번 걸어보길 추천한다. 대부도 해솔길은 해안선을 따라 조성된 산책길(7개 코스, 74km)로, 자연 친화적으로 조성된 소나무숲길과 석양길 등을 걸으며 다채로운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안산시티투어, '힐링여행'

안산시는 관광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안산시티투어 '힐링여행'을 운영하고 있다.

대부도 여행은 ▲ 세계 최대 규모의 '시화호조력발전소' ▲ 바다와 함께 걷는 아름다운 기억이 머무는 곳 '대부해솔길' ▲ 모세의 기적을 체험하는 '탄도바닷길' 등을 체험하는 힐링생태 코스가 인기가 높다.

연간 20만 마리의 철새가 찾는 자연 그대로의 생명을 느낄 수 있는 '대송습지'도 시티투어를 통해 방문할 수 있게 하였고, 15명 이상 예약하면, 요트, 갯벌, 도예, 승마, 유리공예, 종이공예 등 다양한 체험과 원하는 코스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맞춤형 코스도 준비 중이다. 또한, 문화·예술·생태 탐방을 특화한 안산 시내권 여행도 준비되어 있다. 안산 시내권 여행은 ▲ 조선시대 최고의 화가인 김홍도의 작품들을 만나는 '단원미술관' ▲ 실학의 선구자 성호 이익의 검소한 생활을 만나는 '성호기념관' ▲ 국내 최대 규모의 인공습지공원 '안산갈대습지' 등을 체험하는 알뜰 코스로 구성됐다.

안산시티투어는 안산권의 경우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안산 중앙역 2번출구 시티투어 탑승장에서 출발하고, 서울권은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7시까지 광화문역 6번 출구에서 출발한다. 시티투어 버스는 15명 이상 예약이 되어야 운행되며, (주)온누리관광여행사(1899-7687)로 문의하면 된다.

※신재생에너지 체험투어 : 20면 참조



오픈스튜디오 프로젝트

‘옆집에 사는 예술가’(7)

예술가의 삶이 고스란히 담긴 생활공간이 활짝 열렸다. 경기문화재단이 경기지역 미술작가들의 작업을 보다 밀도 있게 소개해온 ‘옆집에 사는 예술가’가 지난해 안산에 더 잡은 작가들의 삶의 철학, 작품세계, 작업과정을 나누는 오픈스튜디오를 진행했다. 안산문화재단 공모로 선정된 열 두 작가의 작업실을 찾아 이들의 작품세계를 들여다본다.



이미션 작가

초지동 행정복지센터 옆 건물에 자리한 이미션 작가의 작업실은 찻집을 겸한 갤러리를 연상케 한다. 창가에 놓인 크고 작은 사과들이 무채색으로 빛을 머금은 채 꼭지마다 가지를

이미션 작가 : 유년의 풍경, 예술이 되다

자연의 순환 속 생명의 근원 찾기

뻗는다. 가지에서 떨어져나간 사과들이 흙으로, 자연으로 회귀하려는 듯 과육을 비우며 나무를 키워내는 형상이다.

인하대학교 미술교육학과에서 조소를 전공한 이미션 작가는 졸업 이듬해인 1988년부터 선배들과 함께 ‘인하조각회’를 결성해 지금까지 30회 이상 꾸준히 전시에 참가하며 조형작업을 해왔다. 지금까지 5회의 개인전, 4회의 아트페어, 초대전에 다수 참가한 이력이 있다.

어린 시절부터 자연을 벗 삼아 살았던 작가의 눈에는 들꽃과 산이 일상이자 매일을 버틸 수 있도록 만드는 생명 그 자체였다. 도심 속에서 환경조경의 천덕꾸러기로 전락하거나 가로수에 발목 잡힌 채 칼질을 견뎌야 하는 나무를 보며 작가는 아파했다. 봄이면 가차 없이 잘려나가는 플라타너스의 고통이 고스란히 전해졌다. 숙명과도 같은 수인(修因)의 삶에도 씩씩 움트는 장면을 포착해내며 작가는 겨울 나목(裸木)처럼 가지만 앙상한 상처를 안은 나무들을, 나무의 형상을 취하되 사실성을 누르고 흙의 느낌을 극대화하며 전체가 아닌 부분으로 표현한다. 나무의 형상, 고통, 그 쓰임과 죽음의 의미를 탐색하며 나무의 근원과 생명의 본질을 테라코타(Terracotta · 점토를 붙여 표현하는 방법) 기법으로 변주시킨다. 흙의 성질을 그대로 노출시킨 몸통을 빚어 가지의 숨통을 틔워듯 나뭇가지를 몸통에 결합시켜 생명을 회복시킨다.

나무를 주제로 한 첫 개인전 이후 이미션 작가는 사과에 주목했다. 껍질과 과육 안에 삶의 근원이 되는 씨앗을 품고

있는 사과. 색을 줄이고 흙의 질감을 살려 무채색으로 표현한 사과는 대지, 즉 흙에서 태어난 사과의 근원에 다다르게 하는 장치다.

흙에서 비롯된 생명들, 자연의 에너지를 생각하며 씨알에서 나무로, 나무에서 열매로, 그 열매가 또 다른 생명의 모태가 되는 비밀스런 순환에는 사과나무의 과정이 ‘삶’이고 그 삶이 ‘사과’이며 사과는 곧 ‘나무’라는 불교의 연기사상이 깃들어 있다. 연기는 인연생기(因緣生起), 즉 이 세상에 있어서의 존재는 반드시 그것이 생겨날 원인(因)과 조건(緣) 하에서 원인과 결과의 법칙(緣起法)에 따라서 생겨난다는 것을 말한다.

근작에는 극대화된 크기의 사과에 도전하는 등 시리즈 작업은 조각에서 설치작업으로까지 확장되고 있다. 이미션 작가는 5월 17일부터 30일까지 대부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리는 19회 ‘상록수조각회’ 전시에 참여한다.

◇ 문의 : suntera9427@naver.com
신선영 명예기자_woghkah@hanmail.net



또 다른 생명의 탄생(2005)

비즈아트와 합창단의 만남 - 잠재적 ‘끼’ 재능기부로 함께해요

나도 비즈공예강사, 성악가, 연주자가 될 수 있다?

이삭로 끝자락 조용하고 아담한 한 문화원에서 박미애 비즈아트작가를 만났다. 문화원은 작가의 조용하고 다정한 성품과 달리 들어가는 문이 눈에 띄었다. 수준 높아 보이는 그림이 있는가 하면 아름다운 비즈아트 작품이 전시돼 있고 피아노가 어수선하게 놓여있다. 양증맞은 의자에 끼를 펼칠 무대도 있다. 이 무대에서 2~3달에 한 번씩 살롱음악회가 열린다.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예술가를 초대해 안산시민과의 만남을 주선하고 새로운 세계를 연결하며, 동기부여의 기회가 되는 장이기도 하다.

Q. 언제부터 비즈아트에 관심을 가졌는가?

미술은 늘 취미생활로 함께 했다. 수채화, 유화, 일러스트 등 주로 그림을 해오다 30대 초반 공예에 관심을 갖고 비즈아트를 접하게 됐다. 처음 7~8년은 강사 생활을 했지만 동일한 프로그램을 가르치는 것에 가치와 보람을 느낄 수 없어 작품 활동을 하는 작가 생활을 시작하게 됐다.

Q. 비즈아트작가로 활동을 해보니 달라진 점은?

작가라는 전문가로 인정받고, 세상에 하나 밖에 없는 작품을 통해 만족과 보람을 느끼고 있다. (직접 만든 비즈아트를) 선물하면 받는 이가 비싼 값을 치른 명품보다 훨씬 귀하다고 만족감을 나타냈다. 주로 서울 인사동과 수원에서 활동을 해왔는데 이제 안산에서 뿌리를 내리고 싶어 작업실을 갖게 됐고, 어울림문화원으로 발전시켰다.

Q. 세부적인 활동계획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비즈아트는 정기 전시회와 수시 전시회를 열어서 배우는 사람들의 만족도를 높여줄 것이며, 살라베이 합창단은 버스킹 및 경연대회 참가로 성취도를 높여줄 것이다.

Q. 살라베이 합창단을 소개한다면?

합창단 이름은 ‘살라베이(соловѣй)’인데 러시아어로 ‘피꼬리’라는 의미이다. 피꼬리 같이 아름다운 노래로 평생 하나 되자는 취지로 2017년 2월 혼성 합창단으로 창단된 순수 아마추어 합창단이다. 안산평생학습관 초청 연주를 시작으로, 고려인 대회 초청 음악회, 한국 프로야구 플레이오프 초청 연주 등에 초청됐으며, 제1회 정기 연주회 및 자선 음악회로 시민의 뜨거운 관심 속에서 성황리에 마쳤다.

Q. 살라베이 합창단이 나아갈 길은?

문화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외 주민들에게는 찾아가

는 음악회를 통해 시민들과 다문화 주민이 합창 및 연주를 통해 하나 되는 문화를 만들고자 한다. 문화생활을 제대로 접하지 못하는 지역에 직접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문화적으로 소통하며 더불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마음으로 음악회를 준비할 것이다.

Q. 향후 계획과 바라는 것이 있다면?

최종목표는 살라베이 합창단 유대현 지휘자와 함께 문화 예술로 풍요로운 안산시를 만드는 것이다. 어울림문화원이라는 이름처럼 예술인들이 어울려서, 재능은 있으나 아직 ‘끼’를 발휘하지 못한 보통사람들에게 재능을 나누고 어울려 사는데 목적과 성취감을 이끌어주는 것이다.

◇ 문의 : 어울림문화원(010-2335-2148, 010-8689-7879)
노론산 명예기자_nrssun@hanmail.net



살라베이합창단



전시 중인 비즈아트



생활체육의 도시 ③

안산



‘배드민턴’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

동호회 회원 6년 사이 1천800여 명에서 3천여 명으로 증가

배드민턴은 생활체육의 꽃이라고 불리며 빠르게 활성화되고 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참여할 수 있으며 라켓과 셔틀콕만 있다면 어디서든지 즐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안산시의 배드민턴 클럽과 회원 증

가 수만 봐도 증명된다. 2013년부터 올해까지 6년 만에 클럽은 24개에서 36개로 증가했으며 회원은 1천800여 명에서 3천여 명으로 늘어났다. 클럽마다 적게는 40여 명에서 많게는 100여 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 현재 안산에서 가장 많은 회원을 보유한 클럽은 고잔동에 위치한 올림픽 클럽으로 108명이다.

클럽은 체육관 시설을 기반으로 형성되어 있다. 적게는 3개에서 많게는 10개까지의 코트를 운영하고 있다. 10개 코트를 소유한 클럽은 와동 배드민턴 클럽으로 안산시배드민턴전용경기장에서 활동한다.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회비 1만2천 원을 내야한다. 그러나 배드민턴에 관련된 행사나 대회 등 협회에서 제공하는 활동에 참여 의사가 없는 주민들에게는 회비를 받지 않고 있다.

게임에 참여할 때는 보통 한 게임 당 각자 셔틀콕 한 개를 준비해야 한다. 셔틀콕은 동일한 것으로 준비하며 클럽마다 사용하는 것이 정해져 있다. 게임이 종료됐는데 사용하지 않은 셔틀콕이 있다면 이긴 선수가 가져간다. 자칫 맛있는 승부가 될 수 있는 경기에 약간의 재미를 더 한 것이다.

올해 5월 9일부터 11일까지 제65회 경기도체육대회가 안산에서 열린다. 이 대회에 참가하는 배드민턴 선수들은 총 8명이며 20~30대로 구성됐다. 안산은 작년엔 5위를 기록했는데 실업팀도 참가하는 대회인 것을 생각한다면 생활체육인으로만 구성돼 있는 안산에겐 큰 성과를 얻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올해는 홈에서 개최되는 만큼 더 높은 3위를



도민체전을 위해 준비 중인 배드민턴 협회 회원들

목표로 연습하고 있다. 선수들은 매주 토요일 와동체육관에서 연습을 하고 있으며 스스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배드민턴은 대회 일정상 4월 29일부터 예선전이 치러진다. 추가적으로 클럽의 회원들이 참가할 수 있는 대회는 시장기, 시의장기, 협회장기, 별망성대회 등이 있다.

모연모 안산시배드민턴협회장은 “안산시는 배드민턴을 하기 위한 체육관, 인적자원 등이 매우 뛰어나지만 아직까지 엘리트를 양성하는 시스템이 없다”며 “생활체육으로 배드민턴이 더 활성화되려면 지역 출신 엘리트 선수를 배출하고 은퇴 후 코치가 돼 후배를 양성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야 된다”고 말했다.

◇ 문의 : 안산시배드민턴협회 사무국장 (010-8026-3646)
인치광 명예기자_chee0806@naver.com

안산에서 즐기는 세계 음식-⑤



양꼬치



오늘은 우즈베키스탄 음식점? 스리랑카는 어때?

이외에도 중국, 러시아, 인도, 베트남까지. 점심 메뉴의 선택지가 국가 단위로 바뀌는 동네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다문화마을특구인 단원구 원곡동이다. 국경 없는

안산 다문화 음식거리에는 다양한 꼬치 종류가 있다

마을 원곡동의 이색적인 외국음식을 소개한다.

안산 다문화 음식거리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음식점 중 하나는 양꼬치 식당이다. 양고기는 특유의 냄새가 있어 처음 접하는 경우에는 살짝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도 적지 않다. 하지만 한 번 그 매력에 빠지면 다른 고기들이 심심하다고 느낄 수 있다. 양고기로 만든 양꼬치는 최근 마니아층을 단단히 구축하며 점차 대중적인 음식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양꼬치의 맛이 궁금하지만 선뜻 시도하기가 걱정 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흔히 양꼬치집이라 부르는 음식점에는 새우나 닭 등 다양한 꼬치가 준비돼있으니 방문해서 자신의 입맛에 맞는 꼬치를 찾아볼 수 있다.

양꼬치의 역사는 기마민족과 유목민족들이 양고기를 간편하게 먹기 위해서 꼬챙이에 구워서 먹는 방식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다가 실크로드를 통해 전해온 다양한 향료를 첨가하고 구워 먹기 시작해 지금의 양꼬치가 됐다. 대표적인 향료는 쯔란이며, 한국인들에게 익숙하지 않는 냄새로 거부감이 들 수 있지만 양고기의 잡내를 잡는데 필수적으로 쓰인다.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에서는 양꼬치를 ‘샤슬릭’이라고 하는데 중국식 보다 고기의 크기가 상당히 큰 편이고 양념도 조금 다르다. 터키의 양꼬치는 ‘쉬쉬케밥’이라고 하는데 양고기 사이에 각종 채소들을 끼워 꼬치

형태로 만든다. 그리스의 양꼬치는 ‘수블라키’라고 하는데 패스트푸드이며, 피타라는 그리스식 빵에 구운 감자와 여러 고명과 소스를 곁들여 먹는다.

안산 다문화 음식거리의 양꼬치 식당 대부분 중국식이며, 중국인이 운영하는 음식점도 많다. 중국식 양꼬치는 연변식과 위구르식 두 가지로 나뉜다. 쇠꼬치에 꽃아 굽는 기계에 올려 손님이 직접 화로에 구워 양념을 묻혀서 먹는 것은 연변식이다. 음식점 직원이 나무 꼬치에 꿰어 구워주며 굽는 과정에서 양념도 뿌려주는 방식은 위구르식이다. 전자는 양꼬치가 식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지만 초보자라면 굽는데 익숙하지 않을 수 있다. 후자는 편하지만 장시간 식사를 하게 된다면 식은 양꼬치를 먹어야 한다.

이 외에 양꼬치 식당에는 양갈비, 양삼겹, 양심줄, 양깃머리, 소고기, 우근막, 어묵, 건두부, 새우, 오돌뼈, 닭발, 오징어입 등 다양한 음식이 준비되어 있다. 양갈비는 양고기 중 고급 부위에 속하며 부드럽다. 양삼겹은 돼지고기 삼겹살에 비해 좀 더 쫄득한 게 특징이다. 양깃머리는 소고기의 한 종류로 위의 일부를 뜻하며 순 우리말이다.

양고기에는 지방산을 분해하는 데 필요한 L-카르니틴이라는 성분 때문에 다이어트 음식으로 각광받고 있다.

인치광 명예기자_chee0806@naver.com

“장애인이 꿈을 나누고 행복한 안산”

‘제4회 안산시 장애인 복지박람회’, 시민 참여로 성황

안산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동조합에서 주관하고 안산시 장애인복지시설연합이 협력한 ‘제4회 안산시 장애인 복지박람회’가 13일 안산문화광장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장애인의 꿈, 가치 있게 나눠요! 다함께!’라는 슬로건 아래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 이해하는 방향으로 인식을 개선하고, 장애인 직업시설의 생산품을 시민들에게 소개하는 축제의 장으로 마련됐다.

이번 장애인 복지박람회에는 안산내일보호작업장, 안산 밀알보호작업장 등 직업재활시설과 안산시장애인복지관, 안산시상록장애인복지관이 함께 했다. 또 안산밀알센터, 안산 시장장애인주간보호시설 등 보호시설과 명취원, 안산평화의집 등 거주시설 그리고 안산시 장애인복지과의 안산시 무한돌봄센터 등 관내 장애인 관련 기관 33곳이 참여했다.

박람회 공간에서는 관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및 장애인 복지시설 31개소가 직접 준비한 장애 인식 개선 홍보활동 및 생산품 체험 부스가 운영됐다. 박람회에 참여한 시민들이 쉽게 체험할 수 있는 베이커리, 천연비누, 친환경 탈취제, 한

드립 커피 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제품에 대한 체험뿐 아니라 기초 수화 배우기, 시각장애인 인식개선, 돌봄 서비스 홍보 등 장애인들의 실생활과 그에 대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었다.

체험부스 외에도 무대에서는 식전공연 ‘마당놀이 뽕파전’을 시작으로 ‘제4회 안산시 장애인 복지박람회’ 기념행사도 진행됐다. 모범 근로 장애인 및 후원자에 대한 표창, 내빈 인사, 축하공연, 장기자랑 등 무대가 이어졌다.

장애인 복지박람회 행사장에서 만난 한 시민은 “장애인들의 자립이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평소 해왔는데 이렇게 다양한 직업 시설이 있는지 이번 박람회를 통해 알게 되었다”며 “장애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가능하다면 장애인 직업 시설의 물품을 조금씩이라도 이용해보아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김호열 안산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동조합 이사장은 “4회차를 맞은 장애인 복지박람회가 처음 시작할 때 쉽지 않았는



많은 시민이 참여한 박람회 현장

데 해를 거듭할수록 성장한 것 같다”며 “경기도 내 주변 도시들에서도 우리 박람회가 너무 좋은 모델이라며 칭찬하고 벤치마킹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에 앞장서는 안산시가 자랑스럽고, 장애인이 더욱 행복한 안산이 됐으면 한다”며 “이런 기회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과 더불어, 장애인들의 직업 재활 시설의 일자리, 생산품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용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문의 : 안산시 장애인복지과(031-481-3344)
황정욱 명예기자_loosedom@hanmail.net

더불어 살아요... 장애인도 행복하고 이웃도 행복하게

안산상록장애인복지관, '행복 나눔 축제' 개최



도전골든벨에 참여한 학생

어떤 나라가 선진국인지 아닌지는 장애인과 여성, 그리고 어린이를 대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고 한다. 지난 4월 20일은 제39회 ‘장애인의 날’이었다. 안산상록장애인복지관(관장 강기태·상록구 차돌배기로 24-2)은 이 날을 기념해 ‘행복 나눔 축제’를 열고 장애인과

그 가족, 이웃주민이 함께 즐기는 자리를 마련했다. 정재영(석호초6)군은 행복 나눔 축제 초등학생 대상 ‘장애이해 퀴즈대회-도전! 골든 벨을 울려라’에서 최후의 1인이 되어 골든 벨을 울리고 안산시장상을 받았다. 정 군은 “참가할 수 있는 마지막 학년에 우승을 할 수 있어서 기쁘다”며 “친구들의 생긴 모습과 마음 씩씩이가 다 다르듯 장애는 사람마다 몸과 마음의 기능 정도 차이라고 이 대회를 준비하면서 깨닫게 됐다”고 말했다. 축제의 나눔 한마당 장터에서는 지역사회의 여러 단체와 업체에서 후원한 질 좋은 제품이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돼 인기를 끌었다. 소파·식탁·냄비·프라이팬·전자건반·이불·장난감들이 앞 다투어 주인을 맞았다. 판매금은 장애인을 위한 복지사업 기금으로 사용하게 된다.

복지관은 또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주민들과 함께 어울리고 즐기는 자리도 마련했다. 사회연대은행 후원으로 300인분 음식을 장만해 장애인·이용자·지역주민에게 4월 15일에 특식을 제공했다. 16일과 18일 저녁에는 구입한 영화 씨디(CD)로 작은 영화제를 진행해 복지관 1층 카페에서 소시지도 굽고 뽕튀기도 하고 꼬치구이도 만들어 지역주민들을 대접하면서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상록장애인복지관은 2013년 11월 문을 열어 동산복지재단에서 수탁운영중이다. 장애인 일시보호가 긴급히 필요한 경우 이용하는 단기보호시설과 발달장애인 자립을 돕는 지원사업, 장애인과 지역, 사람과 사람을 잇는 권익옹호사업, 서비스지원사업, 발달기능향상지원사업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강기태 관장은 “수중재활·음악치료 프로그램은 우리 복지관의 독특한 프로그램이다. 수중에서 하는 운동은 무리가 적고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어서 효과가 크고, 발달장애아동들의 생존수영을 배우는데도 한 몫을 한다. 장애인 당사자뿐만 아니라 형제자매와 부모님들을 위한 프로그램과 자조모임 프로그램들도 다양하다”고 소개했다.

◇ 문의 : 안산상록장애인복지관(031-409-0000) / 백미란 명예기자_whity0218@naver.com

꿈과 희망을 지원합니다... 안산대 평생교육원 에이블대학

발달장애 학생 자립 돕는 고등교육 진행



화예테라피 수업 사진

‘교육’의 사전적 의미는 ‘학문과 기술 따위를 가르치며 인격을 길러 줌’이다. 인격배양은 통용되는 사회규범 속에서 구성원들이 일익을 담당하고 당당한 사회인이 되게 해준다. 그래서 교육은 학령기 일반학생뿐만 아니라 발달장애를 안고 사는 학생들에게 더 절실하다.

안산대 평생교육원은 2019년 3월 발달장애(자폐, 지적장애 2~3급) 학생들의 자립을 돕는 ‘에이블대학’을 개교해 장애 학생들과 부모들의 꿈과 희망을 지원하고 있다.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이에 준하는 학력을 가진 20세에서 28세 청년 16명(여학생 2명, 남학생 14명)이 간단한 수리·어문 입학시험을 보고 안산에이블대학 자립과정에 입학했다. 경기도 광주·수원·광명·부천·안산에서 다른 학부 학생들과 똑같이 등하교하며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4시50분까지 하루 7교시 수업을 받는다.

김병철 교육팀장은 “대학생활을 이해하고 사회에 한발 다가갈 수 있도록 돕는 1학년 교양과정과 2학년 전공과정, 3학년 전공·인턴십 병행 과정 후 3년 과정이 끝나면, 학생들은 사무자동화, 실버 케어, 뷰티 케어, 서비스 경영 등 각각의 전공을 갖고 기관으로 취업을 나가게 된다. 취업이 안 된 졸업생들에 한해 1년 전공 심화과정까지 마련됐다.”고 말했다.

안산에이블대학 교육과정은 평생학습과정-기본교양, 사회적 삶, 기능훈련과 자립과정-기본교양, 사무자동화, 직무능력, 현장직무 두 개 과정이다. 평생학습과정은 통합 환경에서 경험하지 못한 자신감과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 이해와 공동체 의식을 갖춘 인재로서 꿈을 갖게 지원한다. 사회적인 삶의 방법과 내용을 지역사회와 소통하면서 유지하도록 돕는 과정이다. 자립과정은 사회가 요구하는 능력을 갖추며 맞춤형 선택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양성한다. 현장중심의 실무교육으로 현장에서 업무능력과 실용적 기능을 배우는 자립의 삶을 준비하도록 돕는다.

박상주 학장은 “안산에이블대학은 발달장애 학생들의 자립생활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내일 걱정 없이, 오늘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는 부모님들의 심정과 행복을 꿈꾸는 학생들의 바람을 실현시켜 드리는 대학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많은 관심과 격려 보내 달라”고 했다.

◇ 문의 : 안산대학교 평생교육원 에이블대학(031-363-4494~5)
백미란 명예기자_whity0218@naver.com

‘일본뇌염 주의보’

제주에서 일본뇌염 매개모기(작은빨간집모기) 첫 확인



제주지역에서 올해 첫 번째로 일본뇌염 매개모기인 ‘작은빨간집모기’가 채집(4월6일)됨에 따라 모기 매개 감염병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일본뇌염 매개모기인 ‘작은빨간집모기’는 논이나 동물축사, 웅덩이 등에 서식하는 암갈색의 소형 모기

로 주로 야간에 흡혈 활동을 한다.

일본뇌염 바이러스를 가진 매개모기에 물린 경우 99% 이상은 무증상 또는 열을 동반하는 가벼운 증상을 보이지만, 일부에서는 급성뇌염으로 진행될 수 있고 뇌염의 20~30%는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 현재 제주 이외 지역에서는 일본뇌염 매개모기가 발견되지 않았지만 봄철 낮은 평균기온(심한 일교차)으로 매개모기의 활동이 시작되었으므로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다음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첫째, 야외 활동 시에는 밝은 색 긴바지와 긴소매 옷을 입어 피부노출을 최소화하고, 모기가 물지 못하게 품이 넓은 옷을 입는다. 둘째, 노출된 피부나 옷, 신발 상단, 양말 등에 모기 기피제를 사용하고, 진한 향수나 화장품 사용은 모기를 유인할 수 있으므로 야외 활동시에는 자제한다.

셋째, 가정에서는 방충망 또는 모기장을 사용하고 캠핑 등으로 야외 취침시에도 텐트 안에 모기 기피제가 처리된 모기장을 사용한다. 넷째, 집주변의 웅덩이, 막힌 배수로 등에 고인 물을 없애서 모기가 서식하지 못하게 한다.

다섯째, 12개월~12세 이하 아동은 표준예방접종 일정에 맞춰 접종을 완료하고, 성인의 경우 면역력이 없고 모기 노출에 따른 감염 위험이 높은 대상자(노, 돼지 축사 인근 거주자, 일본뇌염 유행국가 여행자)는 일본뇌염 예방접종을 권한다.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책이며 감염병 등 기타 문의는 상록수·단원보건소 감염병관리팀(031-481-5986, 6363)으로 하면 된다.

봄철 야외활동·농작업 시 진드기매개감염병 주의
노출을 최소화 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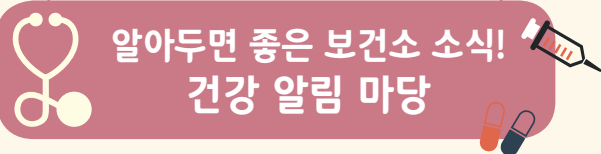
진드기매개감염병(쯔쯔가무시증,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유행시기(4~11월)를 맞아 야생진드기에 대한 주의를 요한다. 봄철인 4~5월과 10월~11월은 농작업, 등산 등 사람들의 야외활동이 증가하지만 동시에 진드기 활동이 왕성한 시기이기도 하다.

진드기매개감염병 중에서도 SFTS는 SFTS바이러스를 보유한 참진드기(주로 작은소피참진드기)에 물린 후 고열, 소화기증상(오심, 구토, 설사) 등을 나타내는 바이러스 감염병이다. 그러나 예방백신이 없어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노출을 최소화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는 첫째, 야외 활동 및 농작업 시 긴팔, 긴옷, 장갑, 장화 등으로 피부 노출을 최대한 줄이면서 진드기 기피제를 사용해야 한다.

둘째, 야외 활동 후 2~3주 이내 발열, 전신 근육통, 가피(고름이 굳어진 것), 발진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반드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아야 한다.

특히 쯔쯔가무시증과 SFTS 감염증은 감염 초기에 적절한 항생제 치료로 완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가 중요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록수보건소(031-481-5999) 및 단원보건소(031-481-6363) 감염병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합동지도단속 실시

- ◇ 기간 : 2019. 4. 3. ~ 5. 29.
- ◇ 단속대상 :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내 흡연 등
- ◇ 단속내용 : 위반자 과태료 부과
- ◇ 문의 : 상록수·단원보건소(031-481-5926, 6752)

상록수보건소
내과진료 및 한방진료 안내

- ◇ 진료일 : 평일 9시~18시 ※ 점심시간 12시~13시
- ◇ 진료비 : [유료] 처방전 발급 시 500원, 검사 및 상담 시 1,100원/ 침시술 1,100원, 한약처방(5일분) 2,000원, 시술+한약처방(5일분) 3,700원
[무료] 안산시민으로 만 65세 이상, 국가유공자(건강보험가입자), 장애인1~3급, 의료급여 수급자
- ◇ 진료내용 : 고혈압, 당뇨병, 퇴행성관절염 등 만성질환 진료, 물리치료 상담 및 처방 시술, 한방보험엑스제 처방 및 상담
- ◇ 준비물 : 신분증 지참 필수, 무료대상은 관련 증빙자료 지참
- ◇ 문의 : 상록수보건소 일반진료실(031-481-5984) 한방실(031-481-5988)

치매 조기검진사업

- ◇ 기간 : 연중
- ◇ 장소 :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치매안심센터
- ◇ 대상 : 만60세 이상 시민
- ◇ 내용 : 보건소 내소자 및 경로당 순회 등을 통해 만60세 이상 주민에게 선별검사 실시, 선별검사 결과 고위험군 대상에게 진단검사 및 감별검사 실시
- ◇ 검진비지원 : 선별검사·진단검사 - 무료
감별검사 -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만60세이상 어르신 검진비 지원 (의원·병원·종합병원급 상한8만원, 상급종합병원 상한 11만원)
- ◇ 문의 : 상록수보건소 치매안심센터(031-481-5801~5807) 단원보건소 치매안심센터(031-481-6541~6549)

찾아가는 입체조 교실

- ◇ 대상 : 60세이상 어르신 단체 6팀 (상록구 소재 10명 이상 단체만 신청가능/ ex: 경로당, 양로원 등)
- ◇ 일시 : 2019년 6월~9월(교육날짜: 전화 협의)
- ◇ 장소 : 해당 기관 방문교육
- ◇ 내용 : 노년기 구강관리방법 및 입체조교육
- ◇ 교육신청(문의) : 상록수보건소(031-481-5996)



한센 피부병 무료 검진 안내

- ◇ 검진과목 : 한센병, 습진, 무좀, 아토피
- ◇ 검진대상 : 안산시민
- ◇ 검진비 : 무료
- ◇ 검진일정 : 2019.5.16.(목)
 - 10:00~12:00 : 상록수보건소 2층 보건교육실
 - 13:30~15:00 : 단원보건소 1층 보건교육실
- * 검진일정 및 장소는 기관사정에 따라 변동가능
- ◇ 검진팀 : 한국한센복지협회 경기인천지부 이동진료팀
- ◇ 문의처 : 상록수보건소(031-481-5941) 단원보건소(031-481-6364)

위험지역 여행객 대상
예방물품 배부 안내

- ◇ 배부기간 : 연중
- ◇ 배부대상 : 안산시 거주자 중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www.cdc.go.kr)참조) 해외여행자
- ◇ 구비서류 : 신분증, 여행확인서류(비행기표, 여행매티켓 등)
- ◇ 배부물품 : 모기 기피제(휴대용), 마스크, 해외감염병 예방 리플렛 등
- ◇ 배부장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감염병관리팀 방문
- ◇ 문의처 : 상록수보건소 2층(031-481-5986) 단원보건소 4층(031-481-6364)





'늘 푸르른(常祿)' 상록구에는 일동, 이동, 사동, 사이동, 해양동, 본오1·2·3동, 부곡동, 월피동, 성포동, 반월동, 안산동 등 총 13개 동이 있다. 파릇파릇 우리동네에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

사이동

2019 감골 사이좋은 벚꽃축제, 벚꽃과 어우러져 사이동에 살고파



사이동 감골축제추진위원회는 4월 13일 본오1차 아파트 앞 중앙도로 일대에서 '감골 사이좋은 벚꽃축제'를 개최했다. 이번 벚꽃축제는 사이동행정복지센터, 주민연합회, 사이좋은 상가번영회, 준공업단지 번영회 등이 함께 준비했으며 2천여 명의 주민이 참여해 성대한 마을잔치로 치러졌다. 노래자랑, 주민자치작품발표회, 각종 공연, 체험부스, 나눔 장터,



퍼레이드 등 다양하게 마련된 축제는 주민들에게 즐거움을 더했다.

벚꽃축제답게 흐드러진 벚꽃이 온 마을과 중앙도로에서 축제에 나온 주민들을 반갑게 맞이했다. 군데군데 가족과 둘러 앉아 즐거운 담소와 맛있는 음식을 즐기는 모습, 경로당 또는 주변 복지관에서 오신 많은 어르신들, 유치원과 어린이

집에서 소풍 나온 유아들 등 동네의 모든 주민들이 나와 벚꽃 속에서 축제를 만끽했다.

도자기 체험부스에서 초벌 꽃병을 받아들이고 환하게 기뻐하는 정장미 씨는 "작년에 아이들이 석호초등학교 다닐 때는 운동회 정도의 규모였는데 올해는 진정한 마을 축제로 커진 것 같고, 아이들도 들떠서 분위기가 고조되어 있다"며 "내년에도 이렇게 즐겁고 뿌듯한 마을 축제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봄벌에 모자도 준비하지 않고 빠르게 앉아 출연진과 하나 되어 춤과 노래를 즐기며 자리에서 뜰 생각이 없는 주민들은 벚꽃에 어우러져 사이동에 살고 싶다고 칭찬이다.

노론산 명예기자_nrssun@hanmail.net



월피동

안산시, 경기도 주민자치대회 '최우수상' 수상



안산시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홀에서 개최된 2019년 경기도 주민자치대회(우수사례 발표대회)에 참가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경기도 주민자치대회'는 지난해 각 시·군에서 추진한 주민자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자리로 올해 11회째를 맞았다. 4월 10일 개최된 대회는 1차 서면심사를 통과한 경기도 15개 시·군의 주민자치위원들이 직접 우수사례를 발표하여 주민자치대회의 의미를 더했다.

안산시 대표로 참여한 월피동은 '상생협력을 기반으로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프로젝트'라는 주제로 서울예술대학, 청년큐브 예대 캠프 등의 마을 자원을 활용한 상생협력, 역량 있는 마을 공동체 상생협력, 마을특성을 살리는 상생협력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특히, 2014년 마을주민 동아리로 시작하여 꾸준히 다양한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마을 주민이 스스로 마을의제를 찾고 실행하는 월피동 마을계획이 심사위원들의 좋은 평가를 받았다.

시 관계자는 "오랫동안 마을을 위해 노력해온 주민자치위원들의 노력에 감사드린다"며 "우수사례가 동력이 되어 안산시 주민자치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동

찾아가는 복지상담소 운영 한대앞역 광장에서 상담



안산시 상록구 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김복식)는 4월 17일 '이동 찾아가는 복지상담소'를 운영했다.

'이동 찾아가는 복지상담소'는 관내 유동인구가 많은 한대앞역 광장에 설치했으며, 지역 주민의 이야기를 들어 관내 위기 가구를 발굴하고 지원 방안에 대해 상담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대상자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다운상품권과 연계된 청년 배당, 산후조리비 등 사업설명을 하고, 신규 복지사업, 변경된 복지서비스 안내 등 이동지역 내 도움이 필요한 소외계층 발굴 사업을 중심으로 펼쳐졌다.

상담에 참여한 주민은 "거동이 불편해 행정복지센터 방문이 어려웠는데, 주민을 위한 복지상담소를 설치해 친절히 상담해 주어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김복식 위원장은 "이동 지역 내 찾아가는 복지상담소를 운영하여 복지사각지대 및 위기가구를 발굴해 위기 상황을 해소하고,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영분 동장은 "복지사각지대 없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봉사하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성포동

어린이 도시농부교실 체험 옥상텃밭을 활용해 농촌 체험하기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최종일)는 4월 16일 성포동 옥상 유휴공간을 활용한 친환경 텃밭에서 어린이 도시농부교실 체험행사를 했다.

마을만들기사업 공모선정 사업인 '친환경 리사이클 도심 만들기'의 일환으로 시행된 어린이 농부교실은 주민자치위원들이 조성한 옥상텃밭을 활용해 농업지도 전문 강사와 함께 관내 어린이집 아이들과 주민자치위원이 상추, 가지, 고추 등 여러 가지 모종을 심는 농촌 체험과 재활용 페트병을 활용한 화분만들기 교실을 통해 자원을 순환하는 방법을 배우는 유익한 시간으로 진행됐다.

이번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조성한 텃밭은 이웃 아이들에게 개방해 꼬마 농부의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후에 아이들과 함께 수확해 관내 경로당 등에 지원할 계획이다.

김영국 동장은 "흙이 낯선 도시 어린이들이 직접 모종심기와 수확을 체험하여 자연의 소중함을 느끼고, 주민들에게 참여와 나눔의 계기를 만들어준 주민자치위원들에게 감사하며, 동에서도 주민과 함께하고 자원순환에 앞장서는 행정복지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단원구

조선시대 대표 화가 단원 김홍도를 기리는 단원구에는 와동, 고잔동, 중앙동, 호수동, 원곡동, 백운동, 신길동, 초지동, 선부1·2·3동, 대부동 등 총 12개 동이 있다. 따뜻한 이웃 우리동네의 소식이 궁금하다.

고잔동

주민의 마음모아 정(情)을 심어요, 416봉사단과 고잔동 일촌가드너의 만남



해마다 4월 5일이면 어느 지역, 어느 동이건 식목행사를 한다. 이 날엔 동네 야산, 공원 등에 마을 주민이 모여 나무와 꽃을 정성껏 심으며 마을을 푸르게 가꾸 애향심을 기르고 주민간의 화합을 도모한다. 특히, 환경오염, 주거지역의 대단지 공동주택화로 인해 도시숲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최근에는 식목행사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올해 고잔동에서는 뜻깊은 식목행사가 열렸다. 고잔동에는 소생정원이라는 전국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마을정원이 있다. 동네 주민 스스로 나서 일촌가드너를 조직하여, 지기

고 가꿔나가는 소생정원에 식목일을 맞아 일촌가드너들과 함께 4.16봉사단이 마을을 위해 함께 모였다.

4.16봉사단은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들로 구성된 봉사단으로 이미 2015년부터 여러 봉사들을 진행해 왔다. 올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봉사를 위해 4.16봉사단을 발족, 그 첫 행보로 고잔동 식목행사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소생정원은 세월호 참사 이후 고잔동 행정복지센터부터 단원고까지의 길을 '소중한 생명의 길'로 선포된 이후 마을 정원으로 조성된 곳이다. 일촌가드너와 4.16봉사단은 뜻깊

은 소생정원에 바람꽃과 데이지, 황매화 등 꽃과 꽃나무 800여주를 함께 심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땀을 흘리며 땅을 파고 꽃을 심다 보니 어느새 편하게 말을 하고 힘든 손길을 서로 도왔다.

정부자 봉사자는 "꽃을 심으러 나오면서 주민들이 어떻게 볼까 걱정했다. 하지만 와서 함께 일하니 참 잘 왔다는 생각이 든다"며 "내가 살던 곳이고 아이들이 다니던 길이다. 고잔동에 도움이 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일촌가드너들도 "그동안 마음 아픈 일로 거리감이 있었다. 위로의 말도 건네기 힘들었는데 이렇게 같이 일하니 그냥 우리 동네 사람이다. 앞으로도 종종 함께 하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며 "소생정원에 일이 많다. 정원을 가꾸기 위해서 일손이 많이 필요한데 함께 해주시면 좋겠다"고 권유하자, 4.16봉사단은 "언제든 불러주시면 오겠다"며 웃음으로 화답했다.

일촌가드너들과 4.16봉사단은 2시간에 걸친 식목행사를 마친 후 봉사단이 준비한 떡과 과일을 함께 들며 주민간의 정을 다졌다.

박미영 명예기자_uzuin70@naver.com

대부동

새마을부녀회, 홀몸어르신 문화 탐방
충남 예산군 예당호 출렁다리 방문

안산시 단원구 대부동 행정복지센터는 4월16일 충청남도 예산군으로 대부동 새마을부녀회원과 홀몸어르신 등 70명과 경로효친사상 고취를 위한 홀몸어르신 문화탐방 행사를 다녀왔다.

이번 문화탐방 행사는 홀몸어르신들에게 봄의 아름다운 정취를 느끼게 하고, 어르신들 간에 화합과 친목을 도모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또한, 지난 겨울 동안의 반찬 봉사에 이어 봄에도 홀몸어르신들에게 새마을부녀회 봉사자들의 온정을 전하고 재충전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박성심 새마을부녀회장은 "이번 홀몸어르신 문화탐방을 계기로 홀몸어르신들의 친목과 화합은 물론 경로효친사상 고취의 계기가 되었으며, 앞으로 새마을부녀회는 대부도 지역의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백운동

새마을 청소년봉사단 발대식 개최
마을 환경정비를 위해 청소년들이 뭉쳤다

안산시 단원구 백운동 새마을부녀협의회는 4월 13일 백운동행정복지센터 앞마당에서 회원들과 청소년 봉사단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백운동 청소년 봉사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백운동 청소년봉사단은 발대식 후 지역 환경정비와 함께 깨끗한 도시 만들기 캠페인을 진행했으며, 올 한 해 동안 지역 구석구석을 다니며 환경정비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고태영, 천옥자 새마을협의회장은 "청소년 봉사단과 함께 환경정비활동을 통해 봉사활동의 가치를 배우길 바란다"며 "봉사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예쁘고 멋진 학생들과 함께 봉사활동을 하게 되어 기쁘다"며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했다.

백운동 새마을협의회는 앞으로 청소년 봉사단과 함께 깨끗한 마을 가꾸기를 위한 정화활동을 매월 둘째 주 토요일에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선부2동

선부아리랑
'우리 민요' 주민공모사업 운영

안산시 단원구 선부2동 주민공동체 '선부아리랑(대표 안병도)'은 다문화 가족 및 지역주민 13명과 함께 선부2동행정복지센터에서 '다문화가족과 함께하는 우리 민요'라는 주민 공모사업을 시작했다고 4월 15일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4월부터 9월까지 월 2회(둘째 주 및 넷째 주 목요일) 우리민요 강사를 초빙해 다문화가족 및 지역주민이 함께 우리민요를 배우는 동시에, 다문화가족들의 고향 이야기, 한국에서 살면서 겪었던 이야기 등을 지역주민과 공감하고 나누며 수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선부아리랑은 선부2동 지역주민의 1/3을 차지하는 외국인들이 한국문화 부족음 및 지역사회와의 단절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다문화가족과 지역주민을 연결하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사업의 필요성을 느낀 주민들이 모여 만든 주민공동체이다.



안산환경재단, 친환경 전기버스 '신재생에너지 체험 투어' 운행 안산갈대습지(태양광), 시화조력발전소(조력), 한국남동발전(연료전지), 누에섬풍력발전(풍력) 등 코스별로 시범운행 실시

안산환경재단이 친환경 저상 전기버스를 이용한 신재생에너지 체험투어를 운영한다. 4월 말부터 1일 1회 이상 친환경 저상 전기버스 1대를 투입하여, 오전 9시 또는 오후 2시에 4시간 코스의 투어를 실시할 예정이다. 올해는 시범 운행으로 참가비는 무료이며, 신재생에너지 체험 투어 참가를 신청한 단체를 대상으로 약 150회 운행할 계획이다.

신재생에너지 체험투어는 안산시가 안산환경재단에게 운영을 맡긴 것으로, 경기도권 지방 자치단체에서 신재생에너지 체험 투어를 위해 전기버스를 운행하는 것은 처음이다.

안산시는 정부의 원전1기 줄이기 정책과 경기도 및 안산시의 에너지비전 2030 선포 등 신재생에너지 생산과 확대, 에너지 절약에 대한 중요성을 시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해 전기버스를 활용한 친환경에너지 체험 투어를 기획했다.

신재생에너지 체험 투어 코스의 주요 경유지는 안산갈대습지내 태양광 시설을 비롯하여, 시화조력발전소(조력), 한국남동발전(연료전지), 누에섬 풍력발전기(풍력)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향후 안산시에서 손꼽히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설 등을 포함시킬 예정이다.

안산환경재단은 대부분을 중심으로 하는 신재생에너지 체험 투어에 친환경 저상 전기버스를 운영함으로써, 에너지에 대한 소중함과 함께, 안산의 자랑거리인 생태보물 대부분을 많은 관광객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로도 삼고자 한다.

플러그-인 방식으로 충전하는 친환경 전기버스는 미세 먼지와 매연 등 대기오염물질은 물론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를 전혀 배출하지 않으며, 소음이나 진동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재단은 친환경 전기버스 운영을 위해 3월 초 안산환경재단 내 주차장에 충전소를 마련했다.

전준호 안산환경재단 대표이사는 "안산시가 가진 우수한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설에 대한 홍보를 통해 자원과 에너지가 선순환 하는 살맛나는 생생 도시로의 이미지 향상,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이해 증진 및 생활 전반의 에너지절약 의식 고취 등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문의: 안산환경재단(031-599-9419)

2019 미술관 아카데미

감각과 상상력을 자극하는 생동감 있는 명품강연에 빠져보기



단원미술관은 6월 22일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2019 미술관 아카데미'를 개최한다.

미술관 아카데미는 '서양미술사로 만나는 위대한 예술가들: 거장 VS 거장'이라는 주제로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미켈란젤로, 고갱과 고흐 등 미술

역사에서 거장으로 불리는 작가들을 중심으로 그들의 삶과 작품세계를 살펴본다.

르네상스 이후 현대미술에 이르는 과정에서 거장으로 평가 받아온 22명의 예술가를 통해 후대가 기억하는 위대한 예술가들의 공통된 특징과 그 의미를 살펴볼 수 있다. 특히, 본 강좌는 개별 작가에 대한 탐색이 아닌 동시대의 동료·경쟁자 또는 스승과 제자 관계에 놓여 있었거나, 후대인들에 의해 의미 있게 비교되는 거장들을 두 명씩 묶어 견주어 살펴봄으로써 이들의 예술세계를 보다 입체적으로 감상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강의는 현대미술에 관한 다양한 글쓰기와 전시기획에 참여하며 이화여대, 한양대, 전통문화대 등에서 활발히 미술사 강의를 하고 있는 강은주 미술사학자가 이끈다. 감각과 상상력을 자극하는 생동감 있는 미술사 교육과 단발성이 아닌 연결성 있는 강의내용으로 참여자에게 깊이와 재미를 동시에 줌으로써 미술에 대한 흥미를 높여주는데 초점을 맞췄다.

단원미술관 관계자는 "2015년부터 매년 단원 김홍도와 관련한 인문학 강좌를 운영했지만, 올해부터는 새롭게 동서양의 미술사를 폭넓게 이해하고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시민들에게 제공해 주고자 한다"며 "상반기에는 서양미술사 강좌를, 하반기에는 조선시대미술사 강좌를 각각 개설하여 참여자들의 이해를 높이고, 작품을 보는 눈을 키워주는 교육으로 진행된다"고 말했다.

◇ 문의: 단원미술관(031-481-0510, 0503)
이선희 명예기자_iamyou70@hanmail.net

음악과 함께 썸타볼까? 안산 '썸day 콘서트'

소란, 몽니, 노리플라이, 빌리어코스티 감성 폭발



(재)안산문화재단이 5월 24일과 25일 양일간 정상급 인디밴드가 출연하는 '썸day 콘서트'를 공연한다. 썸day 콘서트(이하 썸콘)은 5월 안산국제거리극축제의 유쾌함과 계절적 분위기에 맞춰 봄의 설레임을 음악으로 선사할 예정이다.

24일에는 제17회 '유재하 음악경연대회'에서 '뒤돌아보다'로 은상을 수상하며 모습을 드러낸 감성듀오 '노리플라이'가 문을 연다. 노리플라이는 때로는 따스한 감성의 멜로디와 포근한 가사로, 때로는 웅장한 사운드와 드라마틱한 전개로 폭넓은 음악적 스펙트럼을 보여주고 있다.

이어 다양한 장르를 넘나드는 사운드로 위로와 위트가 공존하는 일상을 노래하는 밴드 '소란'이 공연을 한다. 최근 단독 콘서트를 성황리에 마치고 썸콘을 통해 팬들과 다시 만난다.

25일에는 매력적인 허스키 보이스와 뛰어난 기타 실력이 돋보이는 '빌리어코스티'를 만난다. 팝 감성의 어쿠스틱 음악으로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온 빌리어코스티는 독보적인 감성 뮤지션으로 자리 잡고, 실력과 신인 싱어송라이터 '위수'를 영입하며 제작자로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KBS '불후의 명곡', MBC '복면가왕', '나는 가수다 3' 등 국내 TV음악프로그램에 출연해 대세 밴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만능 엔터테이너 밴드 '몽니'가 등장하여 따스한 봄기운 같은 멜로디를 선사한다.

썸콘은 인터파크 및 안산문화예술의전당에서 티켓 예매가 가능하며 4월 25일까지 안산문화예술의전당 개관15주년기념 40% 특별할인을 받을 수 있다. 공연관람료는 R석 6만원, S석 4만원이다.

◇ 문의: 안산문화재단(031-481-4028)

제25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폐회’

4월 12일 임시회 제3차 본회의서 올해 1회 추경안 등 총 34건의 안건 의결

김동규 의장 “동료의원 · 관계 공무원에 감사, 봄꽃처럼 웃음꽃 피길” 당부

안산시의회(의장 김동규)가 4월 12일 제25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안건을 최종 의결하고 18일 간의 회기를 마무리했다. 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3월 27일부터 4월 10일까지 4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한 안건 등 총 34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송바우나)는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안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주미희)도 ‘안산시 시정소식지 · 인터넷신문 발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9건을 원안 가결하고, ‘안산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한 6건은 수정안으로 의결했다.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정종길)의 경우 ‘안산시 어촌민속 박물관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포함, 총 5건을 원안 가결한 데 이어 ‘안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은 수정안 의결했다.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보류 처리한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나정숙)도 ‘안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원안 가결 처리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강광주)는 시가 제출한 2조3천835억1천940만여원의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내역 중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된 20억9천635만여원을 삭감 의결했으며, ‘2019년도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는 4개 상임위원회 별로 심의를 끝낸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따라 제255회 제1차 정례회 기간인 6월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 진행되며, 감사 기간 중 출석할 증인 명단도 확정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유재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외곽 순환고속도로 명칭 변경 촉구 결의안’이 참석 의원 전원 찬성으로 채택되기도 했다. 결의안에는 이 도로 통과 지역 비중의 91%인 경기도와 인천광역시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 그 명칭을 ‘수도권순환고속도로’로 변경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안산시의회가 4월 12일 제25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안건을 의결하고 회기를 마쳤다. 사진은 이날 본회의 중 한 장면.

회의를 주재한 김동규 의장은 폐회사에서 “임시회 기간 동안 열정적이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준 동료의원들과 적극 협조해준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화사하게 피어나는 봄꽃의 기운과 함께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웃음꽃이 가득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한편, 의회는 앞서 11일에도 제2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시정질문을 실시, 시정 전반과 현안에 대한 의회의 시각을 전하는 기회를 가진 바 있다.

안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2곳, 연구 활동 ‘박차’

‘사통팔달 안산 연구모임’ · ‘현문답’팀 4월 16일 각각 현장활동 및 간담회 진행

업계 · 전문가 목소리 청취하며 연구과제 심화 작업 지속

안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사통팔달 안산’을 위한 연구모임과 ‘현장에 문제도 답도 있다’팀이 4월 16일 각각 현장활동과 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활발한 연구활동을 펼쳐 주목된다.

먼저 ‘사통팔달 안산 연구모임’은 이날 오전 단원구 성곡동에 위치한 경원여객을 찾아 지역 이용객들의 대중교통 버스의 불편사항을 전달하고 업계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방문에는 윤석진, 김정택, 강광주, 윤태천 의원 등 연구단체 소속 의원들과 시 대중교통과 관계자 등이 함께 했으며, 업체 측에서는 임원진과 노조 관계자가 배석했다.

사통팔달 팀의 첫 현장 간담회인 이 자리에서는 안산의 각 동에서 수집된 버스 이용객들의 불편 사항에 대한 공유가 이뤄진 가운데 업체 측은 이용객들의 불만 사항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운전자 교육 강화와 업무 환경 개선 등의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의원들도 업계 종사자들의 근무 여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교통 당사자들이 모두 원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연구 과제 중 하나라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이날 ‘현문답’ 팀도 의회 1층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열어 공동주택 분쟁 해소라는 연구 과제를 심화시키는 작업을 진행했다. 회의에 참석한 연구단체 소속의 박태순, 김진숙 의원은 외부 전문가들과의 협의를 통해 연구 과제 실행을 위한 공동주택 부문별 설문조사를 실시하기로 하고, 설문조사의 개요 및 설문유형 등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이어 공동주택 분쟁의 주요 원인인 층간소음의 현황 조사를 위한 현장방문의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하면서 방문 일정



의원연구단체 ‘사통팔달 안산’을 위한 연구모임(사진 위)과 ‘현장에 문제도 답도 있다’(사진 아래)팀이 4월 16일 각각 현장활동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및 장소 등의 활동 계획을 논의하기도 했다. 한편, 현재 안산시의회에는 총 5곳의 의원연구단체가 연구 활동을 의욕적으로 펼치고 있으며, 17일에도 이 단체들 중 하나인 ‘대송단지 의원 연구회’팀이 한국수자원공사 시화지역본부를 방문해 시화호와 주변 유역 개발 계획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안산시의회, ‘갈대습지공원 미개방지역 경계 확정 특위’ 위원장 · 간사 선임

4월 11일 1차 특위 열어 위원장 박태순, 간사 김진숙 의원 선출...

안산시의회가 4월 11일 ‘안산시 갈대습지공원 미개방지역 관리 경계 확정’을 위한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했다. 시의회는 이날 의회 제3상임위원회실에서 제1차 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 간 호선으로 위원장에 박태순 의원을, 간사에 김진숙 의원을 선출했다.

앞서 의회는 지난달 26일 개최된 제25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와 관련해 특위 구성 결의안과 위원 선임안을 의결한 바 있다.

특위에는 박태순 위원장과 김진숙 간사 외에 김태희 이진분 한명훈 윤석진 이기환 의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활동기간은 4월 1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다. 특위는 앞으로 안산시 갈대습지공원 미개방지역에 대한 현장 답사, 관련 자료 분석 등을 통해 이 일대 관리 권한을 강화하고 인접 도시와의 경계 조정을 명확히 하는 작업을 수행하게 된다.

박태순 특위 위원장은 “갈대습지공원은 안산 9경 중 한 곳일 정도로 지역의 명소가 됐고 생태적으로도 활용 가치가 높



4월 11일 1차 회의에서 위원장 · 간사 선임을 마치고 기념촬영에 임하고 있는 특위 위원들의 모습.

은 곳”이라며 “시계 조정이 정확히 이뤄져야 이 일대에 대한 관리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만큼 책임감을 갖고 특위 활동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나비잠 : 우리 아이가 태어났어요〉 코너는
시민 여러분의 참여로 만들어 집니다.

훈훈한 '훈'이 되길 소망

아기이름: 홍중혁 출생년월: 2018년 6월
태명: 훈(외자) 태몽: 배고픈 토끼에게 네잎클로버를 주는 꿈

웃는 모습이 무척 사랑스러운 아이입니다. 태몽은 길 가다가 배고픈 토끼를 만나 집안으로 데려와 네잎클로버 풀을 주는 꿈이었는데, 불가사의하게 도 그 네잎클로버를 눈이 펄펄 내리던 한겨울에 뜰었다는...ㅋ. 어쨌거나 꿈보다 해몽이니까요.

막 보행기를 즐겨타던 때에 모습인데 보기만 해도 씩씩해 보이죠? 예전에는 '아이가 커서 어떤 사람, 어떤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고 했지만 저는 그 런거보다 태명 '훈'처럼 '훈훈하고 따스한 인격체'로 자라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에게 훈훈하고, 이웃 친지 회사 등 모든 이들에게 매사에 훈훈하고 친근하고 다정다감한 사람. 그런 아이로 자라주기를 소망합니다.

• 김경자(상록구 예술광장1로)



흥이 많은 이룬둥이

아기이름: 설예림 출생년월: 2017년 2월
태명: 뽕 태몽: 아빠 품으로 커다란 구렁이가 뛰어들었어요



우리 딸 예림이는 32주 1.46kg 이룬둥이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엄마 품 대신 인큐베이터가 있는 신생아 중환자실에 50여일간 입원하고, 2kg가 되었을 때 집에 온 날을 생각하면 아직도 설렙니다.

숨을 잘 쉬고 있는지 3일 동안 불을 켜고 뜯눈으로 지새우기도 했습니다.

모든 부모들에게 자식이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것은 설레고 기쁜 일일 것입니다. 예림이는 이룬둥이라는 이름을 하나 더 달고 태어나서인지 뒤집고 기고 걷는 성장과정 하나하나가 저에게 항상 감사하고 또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지금은 먹순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잘 먹고 노래만 나오면 몸을 흔들며 대는 흥 많은 아이로 자라고 있습니다.

3월부터는 어린이집에 등원하여 힘든 적응 기간을 보내고 있는 예림이! 엄마가 없는 공간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생활하며 또 다른 세상을 경험하게 될 예림이 응원해 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지금처럼만 밝고 건강하게 자라길 바랍니다.

• 김지연(상록구 향호 2길)

책 읽는 안산 / 5월 추천도서

이달의 주제 생명을 소중히, 자연과 함께 살아가기

아동



동물원을 지켜줘!

저자 최정희 / 출판사 바우슬

인간의 무분별한 행동 때문에 고통받는 동물원 동물들의 진짜 마음을 담아낸 창작 동화입니다. '역지사지'로 인간과 동물의 처지를 바꾸어 놓은 이야기가, 인간이 동물에게 하는 일을 반성케 하고, '동물의 행복'에 관해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

청소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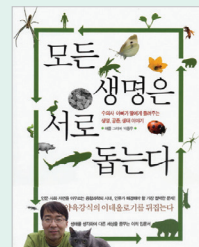


환경에도 정의가 필요해

저자 장성익 / 출판사 풀빛

환경정의의 시각으로 전 지구의 환경 문제를 속속들이 파헤친 청소년 환경 책임입니다. 각 장마다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지만, 맨 마지막 5부에서는 환경정의의 눈으로 이 문제의 본질적 구조와 지속가능한 해법을 제공합니다.

성인



모든 생명은 서로 돕는다

저자 박중무 / 출판사 리수

인간은 생태계의 강자인가? 파괴자인가? 악육강식 이데올로기가 팽배한 생명관의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에 대하여 수의사인 아빠가 딸에게 들려주는 문체로 쉽게 정리한 책입니다. 이 책은 수의사가 전하는 친숙한 동물 이야기와 우리의 먹거리로부터 출발함으로써, 생명과 생태 이야기가 더 이상 나와 동떨어진 문제가 아님을 쉽게 공감할 수 있게 합니다.

자료제공 / 중앙도서관



법률
상식

상가임대차와 관련하여 다투어지는 것들

현재 시행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보호법)은 2018. 10. 16. 일부 개정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현행 상가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하여 주로 문제되는 쟁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대하여 적용하는데, 지역에 따라 일정한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사업자등록에 따른 대항력,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권리금회수기회 보장 등의 규정은 보증금액과 무관하게 적용됨). 안산시의 경우 보증금액이 5억4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월차임이 있는 경우 보증금을 산정할 때 월차임의 100배로 산정한 금액을 보증금에 합산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억 원, 월차임 100만원인 경우 합산 보증금은 2억 원이 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말하는 보증금에는 월세를 환산한 금액이 포함되지 않는 점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과 차이가 있습니다).

2. 차임 등의 증액 기준

임대차계약 또는 기존 차임을 증액한 후 1년이 지나면 차임증액을 청구할 수 있는데, 그 기준은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5/100를 넘을 수 없습니다.

3.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이 규정은 보증

금의 규모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다만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는 차임을 연체한 경우 등 몇 가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임



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는데, 위 10년의 기간은 2018. 10. 16.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되며, 그 이전의 임대차에 대하여는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됩니다.

4. 임차인의 권리금회수기회 보장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특정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안 됩니다. 권리금 관련 규정은 보증금액에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되는 기간 내에는 당연히 권리금 규정이 적용되는데, 그 기간을 지나서 임차인이 영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도(2018. 10. 16. 이전 계약의 경우 5년 경과 시, 그 이후의 계약의 경우 10년 경과 시) 권리금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하급심 판결이 엇갈리고 있으며, 대법원 판례는 아직 선고된 바가 없어 추후 대법원의 입장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김성천(변호사)



독자
투고

5월은 가정의 달이다

신록(新綠)보다 더 푸른 사랑만이 팝콘처럼 하얗게 쏟아지는 5월이다
일 년은 열 두 달인데 왜 하필 5월에만 사랑을 편애하듯 담았을까
솜사탕마냥 부드러운 어린이날, 항상 고맙기 전에 미안하던 어버이날과
멋쩍게 맞이하던 부부의 날 등 웬지 모르게 가슴만 따뜻한 5월이구나.

마음이 가 있는 곳이 가정(家庭)이라는데
노랑부리 백로 너는 왜 성화만 들고 아까부터 몸살을 앓고 있느냐.
푹푹한 보리내음이 입하(立夏)를 데리고 오는 시간
시화호 어디쯤에 네 보금자리가 있겠구나.

예쁜 몸의 가시는 용기의 상징이라서
장미의 꽃말이 '사랑이자 열정'이자 용기'인가보다
안산의 꽃, 장미가 안부를 묻기 전에
세 송이 장미를 곱게 들고서 서둘러 집으로 가야겠구나.
'에게! 고작 세 송이야!', '모르는 소리!'
'붉은 장미 세 송이는 당신을 사랑한다.'는 뜻이란다.
우리 가족 모두를, 5월은 가정의 달이니까...

• 박수진(단원구 선부동)



살맛나는
생활상식
안산

골목경제를 살립니다!
안산사랑상품권
다운 출시

소비자는 **할인**받고, 사장님은 **매출**쑥쑥

구입방법 (일반발행)

현장 구입(지류식, 카드식)
NH농협은행
관내 농협 31개 지점

온라인 구입(카드식)
'경기지역화폐' 앱다운
→ 안산시 선택

사용처

유흥업소, 백화점, 대형슈퍼마켓 등 일부 제한업종을 제외한 관내 소상공인 매장

카드식
제한업종의 모두 결제 가능

지류식
가맹점 (스티커 부착매장)

구입 한도액 및 할인율

구분	출시(6월까지)·영점 특별할인(15일만)		평상시	
	할인율	구매한도	할인율	구매한도
개인	10%	월 30만원	6%	월 40만원 (연간 400만원)
법인	없음	없음	없음	없음

6월까지 10% 할인

문의 : 안산시청 상생경제과 ☎481-2843 / 2828, 2921, 1666-1234



시민여러분의 생활수기를 모집합니다.

메일 _ansannews@korea.kr / 전화 _031-481-2042



안산시 학생 공공디자인 공모전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자 공공 디자인 공모전을 진행하오니 학생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 **주제** : 공공디자인으로 안산 도시 이미지 개선
- ◇ **자격** : 안산시 고등학생, 대학생 (휴학생 제외)
- ◇ **분야** : ①공공디자인으로 도시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는 시각 디자인 ②시민이 편리(유니버설), 안전(셉테드) 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 디자인
- ◇ **기간** : 2019. 9. 23. ~ 9. 26.(24:00 도착분에 한함)
- ◇ **방법** : 인터넷(designansan@korea.kr)
- ◇ **시상** : 작품 40점 / 장학금 2천만원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청 홈페이지(www.iansan.net / 시정안내→시정소식→고시/공고란) 참조 또는 건축디자인과(031-481-2635)로 문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계 대학생 행정체험 연수

- ◇ **접수기간** : 2019.5.24.~5.30.
- ◇ **사업기간** : 2019.7.1.~7.31.(7시간, 주 35시간)
2019.7.1.~8.30.(4시간, 주 20시간)
- ◇ **선발인원** : 250명 내외
- ◇ **대상사업** : 행정사무보조, 아동학습도우미 등
- ◇ **참여대상** : 안산시 거주 국내 대학 재학생
- ◇ **근로조건** : ①임금 : 시급 8,350원, 주휴·월차수당 및 교통·간식(1일 3천원 별도)
②근무시간 : 1일7시간 또는 1일 4시간
- ◇ **신청방법** : 인터넷 접수(시 홈페이지 참조)
- ◇ **문의** : 안산시 일자리정책과(031-481-3983)
※ 자세한 사항을 시홈페이지 참조

인문학 열두마당

울지 않으려고 쓰는 시



- ◇ **일시** : 2019.5.23.(목) 19시
- ◇ **대상** : 청소년 이상 시민
- ◇ **강사** : 오은(시인)
※ 5.2.(목)부터 안산중앙도서관 홈페이지 선착순 접수

퇴근길 인문학

대중문화 속 숨은 과학 찾기



- ◇ **일시** : 2019.5.23.(목) 19시
- ◇ **대상** : 안산시민
- ◇ **강사** : 홍성욱 교수
(서울대 생명과학부 교수)
※ 5.1.(수) 안산관산도서관 홈페이지 선착순 접수

2020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제안사업 공모

- ◇ **운영기간** : 2019.5.10.~6.28.(50일간)
※ 기간이후 접수 차년도 이월
- ◇ **참여대상** : 안산시민 누구나
- ◇ **예산범위** : 2020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자채사업
- ◇ **제안내용** : 지역 현안사업, 지역 특색사업, 주민 복지증진 사업 등
- ◇ **참여방법** : 제안서 제출(온·오프라인 병행)
①온라인 : 안산시예산공개시스템(https://fin.ansan.go.kr, 주민참여예산방-제안사업 공모) ②오프라인 : 우편, 팩스,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제안서 제출
- ◇ **문의** : 안산시 예산법무과(031-481-3028)

공영유료주차장 무료 개방

- ◇ **근로자의 날 무료개방**
• 일시 : 2019.5.1.(수)
• 장소 : 공영유료주차장(57개소) 전면 개방
- ◇ **2019 안산국제거리극축제 무료개방**
• 일시 : 2019.5.4.(토)
• 장소 : 노상주차장 2개소(이삭길, 다리간길)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 ◇ **신고방법** : 스마트폰 앱(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홈페이지, 우편 및 방문
- ◇ **신고대상** :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 ◇ **신고(접수) 요건** : ①사진자료 첨부(1분 간격의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 /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시되어야 함)
②신고기한 : 교통법규 위반사실 적발로부터 3일 이내
- ◇ **과태료 부과** : 요건 구비 시 현장단속 없이 과태료 부과 처분

안산. 청년 이야기 마당

- ◇ **일시** : 2019.5.18.(토) 14시~16시
- ◇ **장소** : 한양대학교 에리카캠퍼스 학생복지관 4층 펠컬터라운지
- ◇ **주관/주최** : 외국인주민지원본부/한양대학교 글로벌 다문화연구원
- ◇ **참여인원** : 토론자, 시민 등 100여명
- ◇ **주요내용** : UN국제청년다문화도시 육성을 위한 안산 청년 이야기 마당
- ◇ **문의** : 안산시 외국인주민정책과(031-481-3295)

함께 나눈 청렴 문화, 함께 누릴 일등 안산

생생한 일자리 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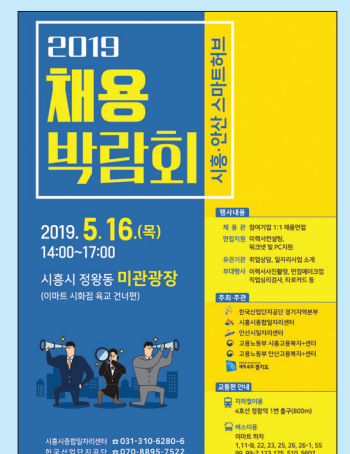
희망과 열정이 있는 취업마당! 안산시 일자리센터가 도와드립니다!

목요일에 희망 잡(Job)고(Go)

2019 시흥·안산 스마트허브 채용박람회

- ◇ **일시** : 2019.5.2.(목) 14시~16시
- ◇ **장소** : 안산시청 대회의실
- ◇ **참여대상** : 취업을 원하는 중장년(4050) 구직자
- ◇ **주최/주관** : 안산시/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지역본부
- ◇ **내용** : 일자리를 찾는 구직자에게 구인 정보와 면접 기회 제공, 인재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는 구인업체에 인력 채용 기회 마련
- ◇ **문의** : 안산시 일자리센터(031-481-2931/2882)

- ◇ **일시** : 2019.5.16.(목) 14시~17시
- ◇ **장소** : 시흥시 정왕동 미관광장
- ◇ **주최/주관** : 경기도, 안산시, 시흥시, 안산·시흥고용복지+센터, 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지역본부
- ◇ **행사내용** : ① 안산·시흥 스마트허브 업체 중 50여개 참여 ②채용 직종 : 사무직, 생산직, 서비스직 등 전 직종 ③구인·구직자를 위한 현장면접,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컨설팅 등
- ◇ **문의** : 안산시 일자리센터(031-481-2277/2919)



가정의달5월 마음을 표현하세요!



- 1 고마워요, 사랑해요
라고 말해주세요
- 2 수요일 저녁 식사는
온 가족 모두 함께 해요
- 3 떨어져 있는 가족들에게
안부 전화를 걸어요

잠자는 동전을 깨우세요

주변에 방치된 동전을 찾아 다시 사용하세요.
동전 재활용, 작은 관심과 노력이면 충분합니다.



5월
한 달간

범국민
동전교환운동

교환장소 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저축은행, 우체국, 농·수·축협, 한국은행